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INNOVATION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7 2017년 봄호

CONTENTS

2017 Vol. 67



표지 이야기

2017년 <헬로우 넥센>의 콘셉트는 'T.I.R.E.를 말하다'입니다. 봄호에서는 두 번째 알파벳인 'I'에 Innovation(혁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내외에서 혁신적인 생산 현장으로 손꼽히는 창녕공장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넥센타이어가 가진 가능성과 진취적인 힘이 바로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입니다.



NEXEN TODAY

04 포커스 온 넥센

한눈에 보는 해외 인쇄 광고 변천사

08 줌인 넥센 1

일본 도요타통상과 합작법인 출범식 개최

10 줌인 넥센 2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건설 계약 체결식

12 줌인 넥센 3

18년째 '주주총회 1호' 개최 전통 잇다

14 줌인 넥센 4

맨체스터시티 FC와 후원 재계약 체결

16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20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울산남구점

24 넥센 갤러리

일상 속 작은 심포, 제 취미를 소개합니다



NEXEN TOGETHER

32 스페셜 테마 1

혁신의 시작, 창녕공장

38 스페셜 테마 2

선도자로 가는 창의성 원천

42 인터뷰

세계 문화 전문가 조승연

46 위 아 더 넥센

서울사무소 T&S영업본부 튜브영업2팀

50 넥센인 톡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52 넥센인 생활백서

일상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는 법

56 패밀리 데이

(창녕) 관리팀 박영하 과장 가족의 체험기

60 대·담하다

(양산) 압출파트 그린조 F4

64 넥센 어라운드

서울사무소 N-Talk Hall 강연

68 넥센 어워즈

2017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 개최



NEXEN TOMORROW

72 스포츠 마케팅

넥센 히어로즈에 부는 새바람

76 집밥 넥센생

즉석식품으로 만드는 즐거운 한 끼

80 넥센 트래블

컬러풀 봄꽃 여행

86 건강 가이드

봄 건강 지키는 생활습관

90 넥센 살롱

혁신을 담은 영화 3선

94 컬처 & 라이프

동심으로 돌아가는 컬러링 북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7년 봄호 통권 67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처 강호찬 발행일 2017년 4월 3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이시라, 최주용, 문경야 사진 (주)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우인쇄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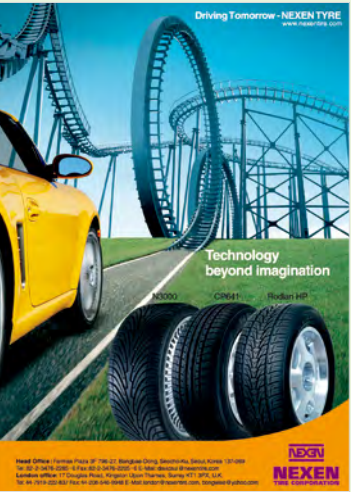


넥센타이어 세계를 누비다

세계로 뻗어나간 해외 인쇄 광고 넥센타이어!
역대 해외 광고 변천사를 담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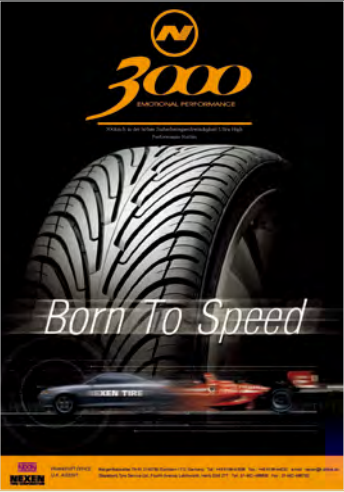
2005
WHAT'S NEXT? It's NEXEN TIRE
앞서가는 기술을 강조해 명실상부 '미래의 타이어 넥센'의 명성을 L.A까지 뻗어나갔다.



2006
상상 이상의 기술
남다른 기술력의 타이어로 영국까지 시원하게 달렸다.



2010
질주본능은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다! 눈 · 얼음에 뛰어난 구동력을 알린 독일 광고.



2003
Born To Speed N3000 EMOTIONAL
레이싱 대회에서 애용되었던 N3000의 성능을 독일에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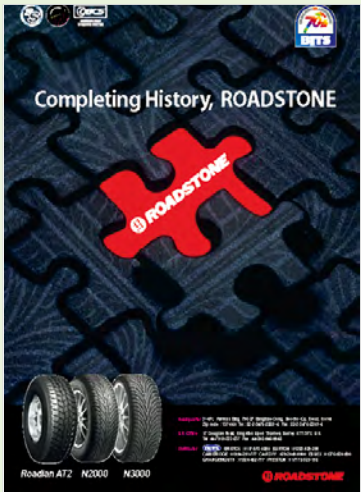
2006
내일을 여는 기술 넥센!
앞서나가는 기술로 미래 지향적인 넥센의 이미지를 굳힌 프랑스 광고.



2007
다이내믹한 날씨와 지형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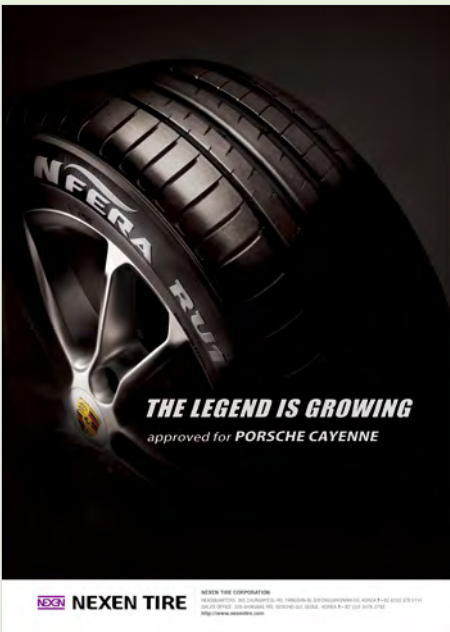
2010
Go to extreme!
타이어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린 넥센. 극한 상황에서도 고떡없는 우리!



2010
Completing History, ROADSTONE
안전하고 혁신적인 드라이빙은 넥센타이어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은 영국 광고.



2012
Equalized Tire with Nature
N blue eco와 N blue-HD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했다.



2016
THE LEGEND IS GROWING
전설은 계속된다. 독일 차 포르쉐 카이엔에 장착돼 명불허전 넥센타이어 전설이 입증됐다.



2016
눈과 얼음을 깨고 러시아를 질주하는 넥센타이어의 역동성을 표현한 광고.



2010
Driving Tomorrow, NEXEN
N8000 · N6000 · CP641로 넥센이 지닌 차세대 기술을 강조한 광고다.



2013
What a wonderful weather!
러시아의 혹한에서도 고떡없는 넥센타이어의 강점을 극대화한 광고.



2013
What a joyful road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 이탈리아 광고.



2016
MOVE BRILLIANTLY
영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FC의 공식 후원사임을 보여준 광고.

일본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강화 도모

일본 도요타통상과 합작법인 출범식 개최

출처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1월 16일 일본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베르사르 롯폰기에서 일본 도요타통상과 함께 양사 간 합작 판매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강호찬 대표이사와 도요타통상 자동차사업본부 카시타니(Kashitani)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회사는 2015년 6월부터 합작법인 설립 및 양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도요타통상 나고야 본사에서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도요타통상은 일본 도요타그룹 계열 종합무역회사로 주력 사업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을 비롯해 철강·화학·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합작법인 이름은 '넥센타이어 재팬 INC.(NEXEN TIRE JAPAN INC.)'로 도쿄 미나토 구에 있으며, 지분의 51%를 넥센타이어가, 나머지 49%를 도요타통상이 보유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제품 품질과 글로벌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도요타통상의 인지도와 유통망을 활용해 일본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확대와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는 전략이다. 넥센타이어 재팬은 일본 타이어 업계에 'Smart Choice'라는 개념을 도입해 판매 확대에 나선다. 이번 합작법인 출범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넥센 브랜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제고시켜나감으로써, RE 시장에서는 아시아 브랜드 중 No.1 판매를, OE 시장에서는 일본 유수의 자동차 업체에 제품 공급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인을 법인장으로 채용해 일본 내 고객 소통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양사는 일본 시장을 협력의 기반으로 삼고, 일본 외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㉞

체코 공장 건설 계약 체결식

넥센 · 삼성엔지니어링 동반자 관계 출발

글 김희진(문화혁신팀) 사진 이맹호



2월 15일 넥센강남타워 엔톡홀(N-Talk Hall)에서 넥센타이어와 삼성엔지니어링 양사 간의 체코 공장 건설 계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번 체결식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자테츠 지역에 넥센타이어의 공장 건설을 알리는 행사였다. 이 자리엔 넥센타이어 강호찬 대표이사와 삼성엔지니어링 박종흠 사장 외 양사 임원이 자리했다. 이 체결식은 넥센타이어와 삼성엔지니어링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계약 체결식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체코 공장 건설에 관한 간략한 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소개와 양사 CEO의 인사말, 사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 공장 건설지로 낙점된 체코 자테츠 지역은 인력 조달을 비롯해 각종 배후 여건이 잘 갖춰진 곳으로,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유럽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동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체코 공장은 넥센타이어의 해외 공장으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유럽에서는 첫 번째 공장으로, 완공되면 넥센타이어는 총 4개의 생산 공장을 갖추게 된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미 유럽에서 여러 차례 공장 건설을 수행하며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첨단 공장을 창령에 보유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경험이 합쳐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향후 세계 타이어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최고의 공장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의 첫 기지가 될 유럽 체코 공장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톱 기업으로 더 큰 도약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㉞

18년째 ‘주주총회 1호’ 개최 전통 있다

글 김희진(문화혁신팀) 사진 권지영(기업문화팀)



2017년 주주총회 시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넥센타이어가 2월 17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성과를 주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로써 넥센타이어는 우성타이어에서 사명을 바꾼 2000년 이후 시작된, ‘주주총회 1호 개최(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기준)’ 기록을 18년째 이어왔다. 이는 투명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주주에게 경영성과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주주 중시 경영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됐다.

넥센타이어의 2016년 경영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1조 8,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480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0.3%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다.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도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수출 8억 불탑 수상을 비롯해 포르쉐 등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을 확대했다. 미국 JD파워 소비자 만족도 4위 기록과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한 품질 제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이 판매 확대와 함께 이뤄진 결과다.

현금배당은 액면가 500원 기준 1주당 보통주 100원, 우선주 105원을 결의해 확정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강조한 대표이사는 “올 한 해도 국내외 유통망 확대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 강화와 고객 지향 서비스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㉞

英 프리미어리그 최초 ‘유니폼 브랜딩’ 등 후원 범위 확대

맨체스터시티 FC와 후원 재계약 체결

출처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선수 유니폼 소매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의 ‘유니폼 브랜딩’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오는 8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17~2018년 시즌 유니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넥센타이어 기업 로고는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기용 유니폼 소매에 부착돼 맨시티가 참가하는 모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및 영국 컵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계약은 기존의 홈구장 광고 및 선수단 이미지 사용권 등의 홍보·마케팅 활동 외에 후원 범위를 넓혀 갱신하는 형태로, 슈퍼리그와 리그 컵 대회 우승 팀인 '맨체스터 시티 여자축구팀'에 대한 후원도 병행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을 도입해 온 넥센타이어는 이번 후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외형 확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 두 가지를 모두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원 계약 체결식은 3월 18일(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시티풋볼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찬 대표이사와 페란 소리아노 맨시티 CEO, 펠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등을 비롯해 가브리엘 헤수스, 일카이 권도간, 질 스콧 등 맨시티 스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맨시티와 함께 EPL 최초로 유니폼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돼 많은 기대가 된다”며 “이번 후원 재계약을 통해 전세계 축구 팬들이 넥센타이어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란 소리아노 맨시티 CEO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넥센타이어와 파트너십을 연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로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¹⁾

넥센타이어 ‘韓·美 굿 디자인 어워드’ 잇따른 수상

‘한국 굿 디자인 어워드’와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넥센타이어의 총 7개 제품이 굿 디자인 제품으로 선정됐다. ‘2016 한국 굿 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넥센타이어는 운송기기 및 차량용품 부문에서 ‘엔페라 RU1’ 제품이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엔페라 HD PLUS’, ‘엔페라 SU1’, ‘엔페라 AU5’, ‘원가드 스노우 G WH2’ 4개 제품이 본상을 받는 등 총 5개 제품이 수상했다. 또한 1월 27일 뉴욕에서 개최된 ‘2016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운송 부문에서 ‘엔페라 RU1’, ‘엔페라 SUR4’ 2개 제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A 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 제품,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1개 제품 등이 수상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국·유럽·아시아의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며 2016년에만 총 16개 제품이 잇달아 수상하는 등 디자인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설날맞이 타이어 무상 점검 캠페인 실시

넥센타이어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아 사흘간 귀성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무상 점검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순천 방향), 26일부터 27일까지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마산 방향) 등 총 4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타이어 관리 전문 인력과 2.5톤의 모바일 점검 차량이 투입돼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고, 워셔액 보충 및 차량 실내 소독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장착된 타이어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모든 타이어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3종 세트(핸드크림·성애 제거기·다용도 장갑 등)를 증정했다.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CJ홈쇼핑 론칭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의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의 홈쇼핑 방송 판매를 시행했다.

2월 20일 밤 10시 40분부터 70분간 CJ홈쇼핑을 통한 특집 방송에서는 상담 고객 전원에게 3,000원 모바일 주유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리바트 부엌 시공 당첨 행운을 선사했다. 렌탈 서비스 신청 후 타이어 장착 고객 전원에게는 2만 원 상품권도 제공했다.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넥스트레벨 명품보증제도는 제품의 마모 또는 파손 시 4개를 렌탈한 경우 2개, 2개 렌탈 시 1개까지 무상으로 타이어를 교체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렌탈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방문을 통해 차량 및 타이어 점검 무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최근 홈쇼핑 렌탈 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6,200건이라는 상담예약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넥센타이어 한국지역담당 박강철 전무는 “넥스트레벨은 타이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고객 지향 서비스”라며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렌탈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넥센타이어,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후원



넥센타이어가 공식 후원하는 동계 스포츠 4개 종목 대회 중 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렸다.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및 챔피언십, 스노보드·스키 빅에어 월드컵, 봅슬레이·스

켈레톤 월드컵 및 월드컵챔피언십, 스키점프 월드컵 등 국제대회 4개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최종 리허설 성격을 띠기에 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스키연맹(FIS)의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잇달아 종목별로 개최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테스트 이벤트 기간 동계 스포츠 파트너십 국내 홍보를 위해 스포츠 중계사인 SBS스포츠와 SPOTV의 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TV 광고를 내보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센타이어, 공식 홈페이지 새 단장 오픈

넥센타이어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일환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3월 13일 오픈했다. 개편한 홈페이지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에 중점을 뒀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으로는 제품별 성능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이어 비교 기능과 방문 이력 에 따른 관심 제품 정보 제공, 타이어 위치 교환 알림, 가까운 대리점 안내 등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의 월 렌탈료 계산기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들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타이어 관리와 드라이빙 팁 등 연관 소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반응형 웹을 적용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고객들에게 일관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7

개최 기념 이벤트 진행

넥센타이어가 주최하는 KLPGA 대회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7' 개최를 기념해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넥센타이어 전문 대리점 타이어테크 행사점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엔페라 AU5', '엔페라 RU5', '엔페라 SU1' 4개를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대상 제품 4개를 구입할 때 받은 이벤트 교환권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입력한 주소지로 사은품이 배송된다. 사은품은 넥센 세인트나인 골프공 '익스트림 소프트' 하프더즌과 세인트나인 양말 세트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부산·경남 지역의 문화와 골프 발전에 공헌하고자 경남 김해에 위치한 가야 컨트리클럽에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주관방송사인 SBS 골프와 네이버를 통해 전체 라운드가 생중계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위한 '2017 퍼플 서밋, 맨체스터' 개최



넥센타이어가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 퍼플 서밋, 맨체스터(Purple Summit, Manchester)'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퍼플 서밋은 넥센타이어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소비자 대상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발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 세계 34개국에서 약 60여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리버풀과의 경기를 관람했다. 이 경기는 올해로 두 시즌째 맨시티 공식 후원 중인 넥센타이어가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한 '스페셜 스폰서를 위한 매치 데이 이벤트'다. 이날 경기는 넥센타이어와 맨시티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최초로 선수 유니폼 소매 위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방식의 '유니폼 브랜딩' 후원 계약을 발표한 직후 열린 시합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경기 하프타임 동안에는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타이어를 향해 공을 차 넣으면 상품을 증정하는 '넥센타이어 스킬스 챌린지'도 함께 열렸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청해 보다 긴밀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2017 퍼플 서밋'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더욱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타이어테크 울산남구점

지난해 7월 개장한 이후 철저한 관리와 AS로 신뢰를 얻고 있는 울산남구점. 타이어테크의 아이덴티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디자인을 적용한 매장이다. 한번 방문하면 잊지 못할 서비스로 평생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매장의 매력을 발견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점장
이진훈

이진훈 점장 : 안녕하세요. 울산남구점장 이진훈입니다. 우리 매장은 넥센타이어의 임대 직영점으로 모든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근무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꼼꼼한 정비로 고객들을 맞이하지요. 최근에는 넥센타이어와 엔페라 모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과장
장준영

장준영 과장 : 가장 기본 사항인 청결에 신경 쓰고 있어요. 출근하자마자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방문한 고객들이 기분 좋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다음 매일 회의를 통해 일과를 계획합니다. 더불어 전문성과 친절함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면 높은 판매량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진훈 점장 : 우리 매장을 통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을 시작하는 고객이 많아요. 부담 없는 가격과 넥센타이어의 뛰어난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타이어 네 개 구입 시 두 개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널리 소개하고 있고요.

장준영 과장 : 상담하다 보면 엔페라 모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체감해요. 근무하면서 뿌듯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 덕에 고객들이 저희의 전문성을 믿고 단골로 찾아오세요. 다른 고객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이진훈 점장 : 매장 인근에 위치한 여러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기는 만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얼라이먼트, 워셔액, 와이퍼 상태 관찰 후 교체 등 모든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드립니다.

장준영 과장 : 타이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랙과 마모조. 꼼꼼히 점검한 후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상담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입선출 방식을 지키며 타이어 재고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11
문의 052-276-4577



이진훈 점장 : 올해 목표는 울산 일등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 : 언제나 진실성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객이 아닌 평생 고객으로 모실 자신이 있으니 울산남구점 많이 찾아주세요! ㄹ

일상 속 작은 심포, 제 취미를 소개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취미! 재미와 스릴, 특별한 기분까지 안겨줄 취미 생활을 하는 순간 삶의 질은 이전보다 달라져있을 겁니다. 넥센인들은 요즘 어떤 취미에 빠져있을까요? 등산, 클라이밍, 프라모델 조립, 어항, 캠핑은 물론 육아에 이르기까지! 넥센인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헬로우 넥센>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정리 김수진



(양산) 가류파트 김상섭 소장

2017년 레드조 야간 근무 후 첫 산행에 올랐습니다. 가족 같은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오르는 산행! 여기에 허기를 채워줄 음식과 트로트 음악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요.



'넥센머썹' 저와 함께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영업전략팀 최원석 대리



튼튼한 다리와 등산화 정도만 있으면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등산' 아닐까요? 사진은 지난겨울 소백산에 올랐을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꽃이 피는 요즘, 넥센타이어 직원분들도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데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영업전략팀 전형주

Hello NEXEN

재미있는 운동을 찾다 실내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지도 어느덧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검팀 조성민 대리



요새 프라모델 조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쌀쌀한 요즘 날씨에 집에서 따뜻하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아요. 입문자 단계인 배를 만드는 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쉬워니, 너무 어려워 말고 도전해보세요.

(창녕) 전기파트 진명수



제 취미는 어항 꾸미기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어른들 힐링용으로도 그만입니다. 봄철 건조한 집 안이 걱정된다면,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하니 일석이조!



**인재개발팀
임광현 과장**

제 취미는 캠핑과 해루질이에요. 직무 상 출장이 많아 자주 다니지는 못하지만 1년에 6~8회는 꼭 가족들과 캠핑을 다닙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개불, 해삼, 조개 같은 것을 잡는 해루질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놀이예요. 9살, 6살 된 딸들도 졸졸 따라다니며 사냥의 맛을 알아버렸네요.

**영업전략팀
변인규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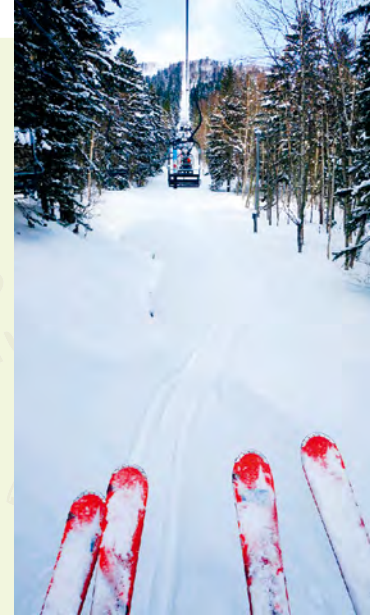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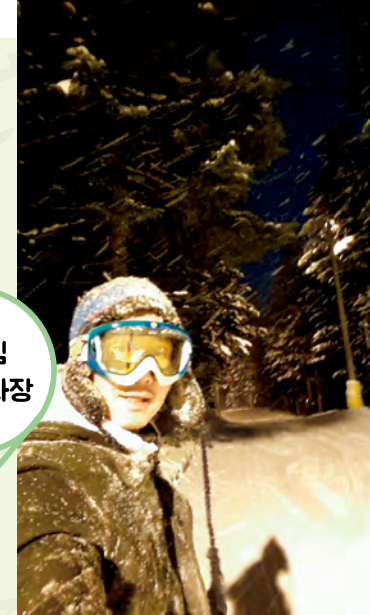
수영과 헬스를 좋아하던 저에게 '육아'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평일, 주말, 시간나는 대로 아기와 셀카 찍기, 유튜브 보기, 사람들이 쳐다봐도 큰 소리로 놀이기구 타기, 수영장 가서 놀아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 아이도 어느새 3살이 되어가네요. 자는 품도 어찌나 똑같은지... 맛벌이 넥센 직원 분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인사팀
고용운 과장**

3년 차 초보 스키어입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제야 취미 붙여서 잊지 못할 야간 스키도 타고 왔어요.



**상품기획팀
정영고 대리**

헌책방을 방문할 때면 늘 예상하지 못한 낯선 책들과 조우하곤 합니다. 그 또한 인연이겠지요. 그 우연에 가까운 기연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깁니다. 사우분들도 헌책방에서 낯선 인연에 대한 설렘을 느껴보세요.



**전략기획팀
양승진 과장**

요즘 제 취미 생활 중 하나는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처음 배운 것은 아주 옛날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흠뻑 빠졌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동안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주인공의 바둑 두는 모습을 본 것이 계기가 돼 다시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부터 배우기 시작한 아들과도 자주 함께 두곤 합니다.



Hello NEXEN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씨앗에서
새로운 생각의 싹이 돋아납니다.
새싹이 자라서 혁신의 꽃을 피웁니다.

Hello NEXEN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씨앗에서
새로운 생각의 싹이 돋아납니다.
새싹이 자라서 혁신의 꽃을 피웁니다.



혁신

명품 타이어를 위한 넥센타이어의 혁신.
다음 세대를 이어갈 혁신은 창의에서 나옵니다.
창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꾸준한 지식의 축적과 충분한 여가,
타인과의 격의 없는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헬로우 넥센〉봄호에서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이야기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추구해온
넥센타이어가 가져온 변화를 들여다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팩토리

혁신의 시작, 창녕 공장

세계 제일의 최첨단 · 친환경 자동화 공장이라는 목표 아래 세워진 창녕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한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높였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다.
자타공인 '타이어 공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창녕 공장은 많은 이에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공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곳은 시대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 현장이다.

글 조병래 사진 넥센타이어





새로운 시대 개막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글 알파고의 뜨거웠던 접전을 기억하는가. 대국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승리를 자신했던 이세돌 9단은 첫 경기를 마친 후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놀랐다”라는 말로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알파고는 4차 산업혁명의 산물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증기를 이용한 기계화의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로 발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이다.

우리 생활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스며들고 있다.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라는 세 가지 화두로 인류의 삶이 바뀌는 중이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을 여닫고 항상 착용하는 손목시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3D 프린팅 기술 등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 형태와 다른 점은 ‘지능화’다. 거의 모든 사물이 지능을 갖춘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따른 움직임이다. 세계경제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생산과 유통 등 일부 시스템의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생산 과정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까지 지능화돼 있다. 로봇이나 의료기기, 산업장비 같은 제품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돼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자동제어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로봇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소만 입력하면 원하는 장소로 물건을 배달하는 드론이 그 예다. 고속도로에서 쓰이는 하이패스, 알아서 충전기를 찾아가는 로봇 청소기 같은 사물인터넷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의 개념을 바꾸다

창녕 공장은 이러한 산업 발전의 집약체다. 생산 라인을 일렬 배치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고 생산 효율성도 높였다. 이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련부터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최첨단 설비를 적용하고, 생산이력시스템이 모든 타이어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점이다. 각 공정을 통과할 때마다 무인 반송 설비(LGV)를 비롯한 각종 자동화 로봇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관 및 이동된다. 어떤 기기에서 몇 시에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고, 이를 통해 선입선출 및 관리가 한층 수월해진다.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가 즉시 알 수 있고 솔루션도 나온다.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른다.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이 설치돼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강점이 있다.

창녕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일 뿐 아니라 클린 팩토리이기도 하다. 수백 개의 태양열 집열기로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한



공기정화시스템, 자연 배출식 공조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해 무재해·무질병 사업장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첨단 현장에서도 자연과 공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은 계속된다.

창녕 공장의 또 다른 별칭은 ‘타이어 공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013년 KBS 다큐멘터리 <작은 거인>에서 창녕 공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장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벡센타이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전자동식 생산 시스템 덕분이다. 약 1조 원의 투자액과 2년여의 공사 끝에 탄생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라는 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상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인 운송 설비가 호기심을 일게 했고, 청결한 내부 또한 기존의 ‘공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했다.

이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에게 벡센타이어와 창녕



공장이 지닌 가치,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5월 방영된 KBS 스페셜 <미래를 바꿀 승부수>에서도 창녕 공장의 진가가 확인됐다. 국내에 스마트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개된 이 프로그램에서 벡센타이어의 창녕 공장 또한 혁신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조명됐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경쟁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창녕 공장이 세계적 수준의 타이어 공장으로 자리 잡은 것도 벡센타이어의 선구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벡센타이어가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명차 포르쉐를 비롯해 폭스바겐과 FCA 오토모빌스, 글로벌 르노, 미쓰비시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 것은 창녕 공장처럼 혁신적인

시스템에 뛰어난 품질이 밑바탕된 것임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매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창녕 공장을 방문해 수준 높은 시스템을 견학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타이어 공장이 맞느냐고 질문할 정도로 청결한 내부에 놀란다. 이러한 벡센타이어의 최첨단 시스템은 2018년 체코에서도 선보이게 된다. 연간 1,200만 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지어질 예정으로, 자동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이 타 업계의 모범 사례인 만큼 창녕 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도 눈에 띈다. 현재 1,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창녕군, 창녕제일고등학교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학교 졸업생들을 최우선 취업시키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벡센타이어의 노력이 상생으로 이어졌다.

강병중 회장은 “창녕 공장이 수출의 전진기지”라며 “벡센타이어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 엔진임은 물론, 글로벌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벡센타이어가 세계 10위권 타이어 회사로 발돋움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㉞





Innovation

선도자로 가는 창의성 원천

지금은 혁신할 때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무한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기치 아래, 75년을 혁신으로 일궈온 넥센타이어가 제조업에서 선도자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혁신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 원천'을 알아봤다.

글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애플 · 구글 · 페이스북 · 테슬라 · 우버 · 에어비앤비 등 세계를 호령하는 혁신회사가 왜 실리콘밸리에만 득시글하는지 궁금했다. 이제 더 나은 회사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회사가 쏟아져 나온다. 전 세계 인재가 모여 살며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실리콘밸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필자가 생각한 창의성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승리해야

첫째, '평등한 토론 문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서 나온다. 회의석상에서 위사람이 권위로 아랫사람을 짓눌러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나온 아이디어가 발전하기도 어렵다.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의 회의실을 보면 이처럼 계급장을 떼고 주저 없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 스탠퍼드대의 디스쿨(D.School)이라는 곳이 있다. 이 학교의 공간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다자인컨설팅회사 아이디어의 데이비드 켈리는 <공간 만들기>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는 학생들과 교수진의 위치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실에 들어오면 누가 가르치는 사람인지, 누가 배우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혁신은 이런 평등함 속에서 번창합니다. 보스나 교수가 방의 머리 부분에 서 있으면 마치 '무대 위에 서있는 현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스가 내 생각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두려움에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특정 인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최고의 아이디어가 항상 회의 테이블에서 이겨야 한다. 그게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는 시발점이다.

다른 출신, 다른 문화의 인재 영입

둘째, '다양성'이다. 실리콘밸리의 큰 회사든 스타트업이든 실제로 가보면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인도계 리더, 유럽계 백인 디자이너, 중국계 코더, 히스패닉 코더와의 만남은 일상적이다. 여성 인재도 많다. 다른 출신 지역,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변칙이는 아이디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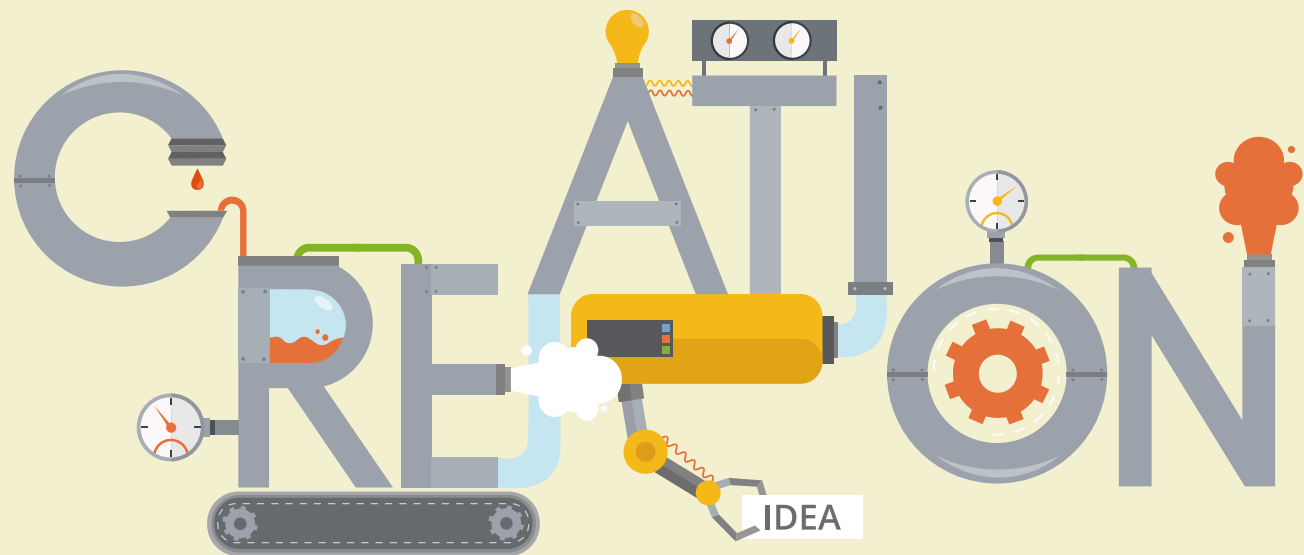
나온다. 특히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을 만들 때는 각 지역의 사정을 환히 알고 있는 지역 출신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제품을 만든다.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 그 지역 일류 학교를 졸업한 남성들로만 채워진 조직이 있다면 어떨까. 아무리 똑똑한 인재라 해도 모두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집단사고’로 가득 찬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은 다양한 인재가 있는 조직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다.

‘놀이’에서 나오는 창의력

셋째, ‘잉여의 힘’이다.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에서 나오는 창의력이다. 예전에 한 콘퍼런스를 참관했을 때 기조연설에 <프리>, <룽테일 경제학> 등의 저서로 유명한 혁신전도사 크리스 앤더슨이 나왔다. 그는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해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개방적 혁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창의적인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 ‘세계화한 개방형 지식 플랫폼’에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참여 기여도가 낮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앤더슨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나도 같은 질문을 했다. 이때 ‘한국 사람은 바쁘다. 보통 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마도 그게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에 살면서 관찰해보니 그들에게는 여유로운 ‘저녁’과 ‘주말’이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지인인 한 벤처기업 사장은 차고에서 아들과 모형 비행기를 같이 만들어 주말마다 비행기를 날리러 간다.



내 작은 행동이
창의적 조직 문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즐길 줄 모르는 문화도 창의력의 적이다. 앤더슨은 “창의력은 ‘놀이’에서 나온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창의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는 무엇도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책도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읽지 않는다. 남이 읽는 인기 도서를 경쟁하듯 읽는다. 인기 도서 순위에는 자기계발서가 다수 포진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을 더 오래, 열심히 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조직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조직의 창의력을 죽이는 일이다. 그것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더 효율적으로 빨리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방법과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누구보다 높은 사람들이었다. 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잡일에서는 최대한 해방되게 한다. 여유로워진 남은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창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업무 시간의 20%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구글의 20% 타임이 대표적인 예다.

창의적 조직 문화 위한 내 혁신이 핵심

회의석상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다양한 배경과 문화의 조직 구성원을 받아들이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앞서 말한 세 가지는 조직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다.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순수하게 즐길 때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조직에 앞서 내가 혁신할 방안을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평소 동료가 한 말 중 괜찮은 아이디어를 인정해주는 칭찬 한마디, 서로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나를 위해 떼어놓는 20%의 휴식 시간이 혁신의 시작이다. 내 작은 행동이 창의적 조직 문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먼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자. 이것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창의성의 원천이다. ㉞





세계 문화 전문가 조승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크리에이터다 Creator

세계 문화 전문가인 조승연 작가는 창의성을 '자라나는 것'이라 말한다. 읽은 책과 들었던 음악,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다듬어져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란다는 것.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것은 기본 소양을 부지런히 닦아두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실패와 경험으로 점철된 시간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뉴욕대 경영학교(NYU Stern School) 재학 중 저서 <공부기술>을 펴내 주목받고 7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연 작가는 요즘 방송가에서 활약하고 있다. 각국을 대표해 모인 이들과 회담하고(tvN 비정상회담),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의 도시를 안내하며(EBS 세계테마기행), 명사들과 심도 있는 질문을 주고받으면서(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깊은 인문학적 소양을 풀어내는 중이다. 20여 권의 저서를 낸 작가이기도 한 그를 만나 유연하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Q <헬로우 넥센> 봄호 주제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혁신은 창의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창의력을 어렵게 생각하고, 남보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칭하며 자신과 거리를 두기 일쑤인데요. 작가님의 경우도 '언어천재'라는 수식이 붙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은 다른 건가요?

A 저는 천재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남이 하지 않는 부분에 노력을 쏟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피아노의 82개 건반에서 1초에 두 개 이상의 음표를 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다들 놀라죠. 그런데 사무실의 내 동료가 작은 자판 안에 밀집된 110개의 키를 1분에 300타 속도로 치는 걸 봐도 놀라지 않아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지만 천재라고 말하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Q 그럼 그 노력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A 굉장히 쉬운데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이 있죠. '모른다'는 말이요. 한국에서는 모른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입사원이 "요즘 이런 소비자 트렌드가 뜨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라고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그래? 몰랐어. 좀 보자" 하는 순간 시너지가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죠. 창의력까지 갈 것도 없이, 주변에 있는 아이디어부터 잘 살피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르치려 든다’라고 생각해요. 공짜로 정보를 얻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맹자가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이 큰다는 말이에요. 권위주의를 버리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첫걸음이지요. 타인은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엔 창의력의 기본 자세예요.

Q 요즘 작가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요.

A 공부와 강연이 업이다 보니 제 말을 하는 데 익숙해요. 반면 방송에서 만난 진행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정보를 쏟아내게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죠. 얼마 전에는 미국 CBS 방송국 견학을 갔어요. 일하는 모습이 예술이에요. 20분 촬영 후 컷하고 5분 쉬면서 남들은 화장실 다녀오는데 PD와 작가들은 3분 30초

나만을 위한 생산을
해보면 좋겠어요.
문화생활은 인생을
더 충만하게 만들죠.

만에 회의를 끝내고 스태프들에게 내용을 전달한 다음 원위치로 가서 대기해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Q 저서 <비즈니스 인문학>에서 창의적이려면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강조하셨죠. 넥센타이어는 생산 환경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은데요. 생활 리듬상 문화예술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A 흔히 클래식 문화는 예술, 힙합은 놀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걸 즐기든 자신만 충만하면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문화를 생산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례로 사먹는 건 제 경험상 직접 해먹는 즐거움의 반도 안 돼요. 불규칙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회사를 위해서 생산을 하고 난 후라면 나만을 위한 생산을해보면 좋겠어요. 맛이 없더라도 가족에게 요리를 해준다거나,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의 주제곡을 영어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삶의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죠. 당장 내 인생을 더 충만하게 하는 문화생활이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좋겠어요.

Q 그렇다면 요즘 바쁘게 활동 중인 작가님의 세포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하루 중 쉬는 시간을 내어 여유를 찾아요. 40분 정도 뉴에이지 음악과 차 한잔을 즐기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생산성에 도움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렸을 거예요.

Q 여가가 필요하다는 깨달음과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고수하게 된 작가님의 원칙이 있나요?

A 제가 방송에서 콘텐츠를 뽑아내는 속도가, 책을 읽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전자책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며 잠이 날 때마다 책을 읽죠. 시청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드려야죠.

Q 앞으로도 풀어놓을 이야기가 많겠네요.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실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넥센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A 최근에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생겼어요. 동남아시아는 서구인들이 1400년대부터 오가던 곳이라 세계 역사의 교차로 같은 곳이지요.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동성이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넥센인들도 창의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 **㉞**





서울사무소 T&S영업본부 튜브영업2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글로벌 타이어 업체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넥센타이어, 그 중심을 든든히 지원하며
밝은 내일을 만드는 팀이 있다. 넓은 해외시장에서 팀원 모두가 공동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는 튜브영업2팀 8인을 만나보았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열정으로 승부하다

실 새 없이 올리는 전화와 비워도 금세 차버리는 메일함, 여권에 빼곡하게 적힌 출입국 도장은 튜브영업2팀에겐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해외로 출장을 다녀오면 보통 10일 이상 자리를 비운다는 그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니 왁자지껄 수다를 늘어놓는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웃음이 이어지니 팀 분위기는 긴 말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일겸 팀장은 튜브영업2팀의 끈끈함을 자랑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성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해외 영업 지붕 아래 가족적인 분위기를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팀의 리더인 김일겸 팀장과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해결하며 팀원들의 업무까지 챙기는 정주영 차장,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병주 과장, 센스와 재치를 겸비한 정현우 과장, 풍부한 경험과 차분한 성격으로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강원미 사원,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전우연 대리,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홍성권

대리, 업무에 대한 소신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막내 김해인 사원까지 조화가 돋보인다.

튜브영업2팀은 전 세계를 무대로 판매와 구매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

아태 지역·대양주·중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쌓으며, 넥센타이어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넥센은 우리나라 타이어 선발 기업인 홍아고무공업사가 뿌리다. 자동차용 튜브는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생산된 고품질 제품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수출되어 승용차와 트럭, 버스를 비롯한 모든 자동차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조병주 과장은 이미 해외에선 넥센튜브가 ‘월드 넘버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품질, 사이즈, 무게 등 해외 OE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넥센타이어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유명한 타이어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해주면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와 영업사원들의 끈질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지도를 그리는 글로벌 전문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가격 조정, 바이어의 요구, 정확한 피드백 등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법.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김일겸 팀장의 말에 팀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바이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래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과 나누는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떠나서 평소애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해외 영업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직접 보진



김일겸 팀장

이번에 승진한 우리 팀원들 모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합니다.



정주영 차장

건강과 업무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 챙기고 업무 실적도 잘 챙겼으면 합니다.



조병주 과장

세계 경제가 나아져서 올해는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우 과장

팀원들 간에 생방향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혁신을 이뤘으면 합니다.



전우연 대리

예정된 2~3개국 출장을 잘 마무리할 계획이고, 틈틈이 운동을 하며 삶의 활력을 키울 거예요.



홍성권 대리

팀원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미

새로운 시장에서 넥센타이어 돌파가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인

업무 외 시간에 취미 활동도 조금씩 늘리고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겠습니다.

못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당찬 도전정신이 느껴졌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권 대리는 해외 출장에 앞서 품목에 관한 공부는 물론이고 현지인의 관습과 전통까지 세심하게 출장 준비를 한다고 한다.

“언어를 떠나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출장 전에 그 나라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이란을 방문하기 전 공부한 덕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아시아/태평양을 담당하는 정현우 과장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의 바이어를 위해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K-POP CD나 인기 있는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물을 받은 바이어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간혹 오더로 연결되기도 한다니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해외 영업은 성공하기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냉철한 판단력과 끈기로 승부해야 한다.

튜브영업2팀은 올해 시장점유율 넘버원이 되기 위해 기존 거래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신규 거래사와의 거래 체결을 늘리는 게 목표다. 튜브처럼 유연한 전략으로 온 세계에 넥센타이어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칠 튜브영업2팀의 모습을 기대한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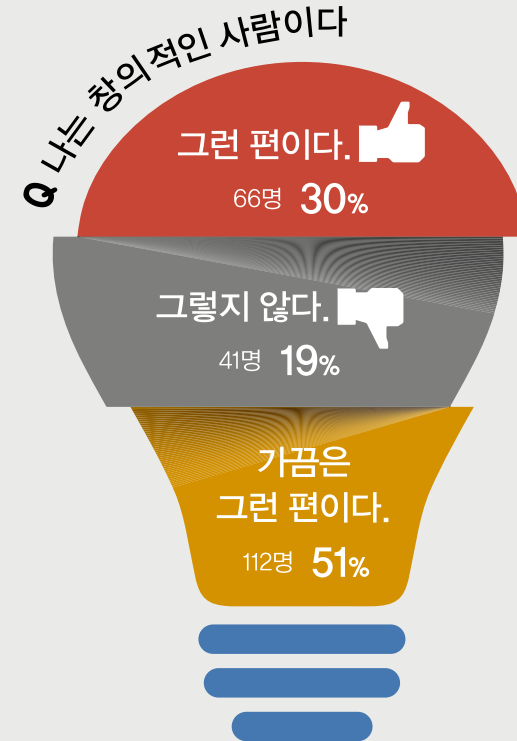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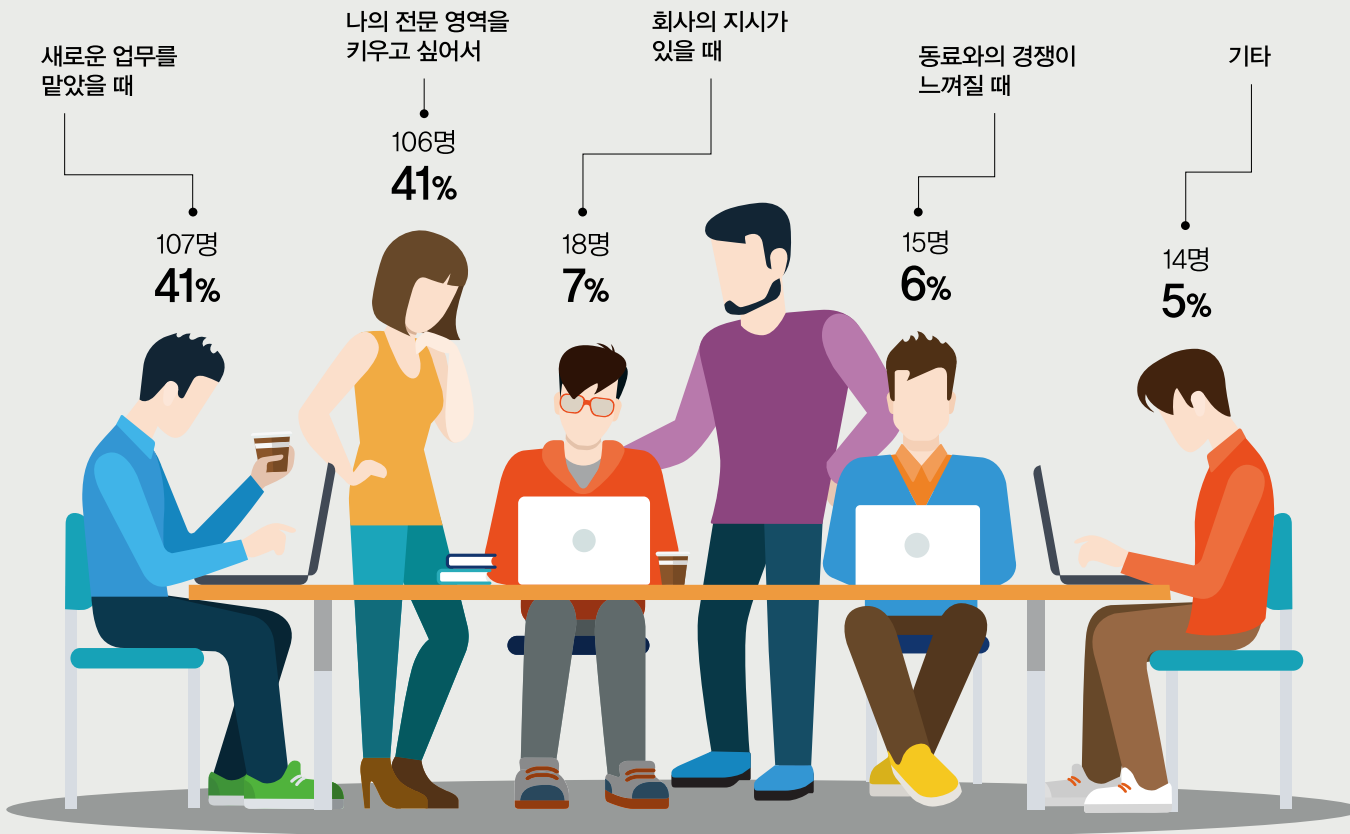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2017년 2월 14~17일 진행, 총 219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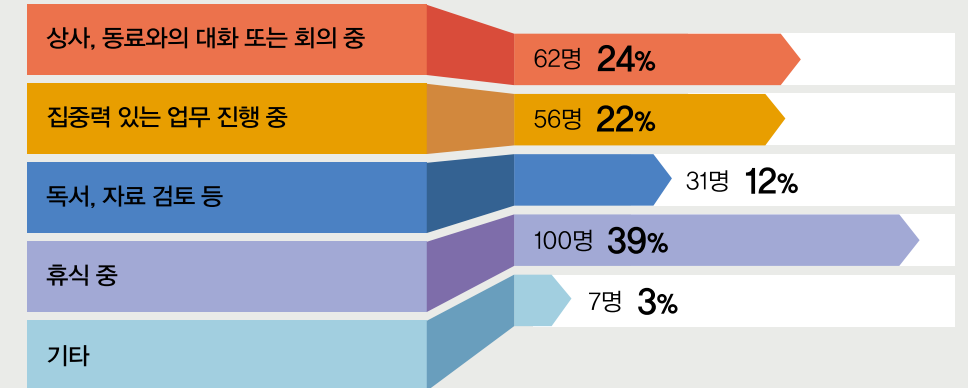
유레카(Eureka)! 무릎을 탁 칠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현듯 아이디어가 찾아오는 마법 같은 순간보다는, 반복되는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며 얻는 창조와 혁신의 달콤한 열매가 더 값지겠지요? 넥센인들은 아이디어, 창의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복수 응답).

정리 김수진

Q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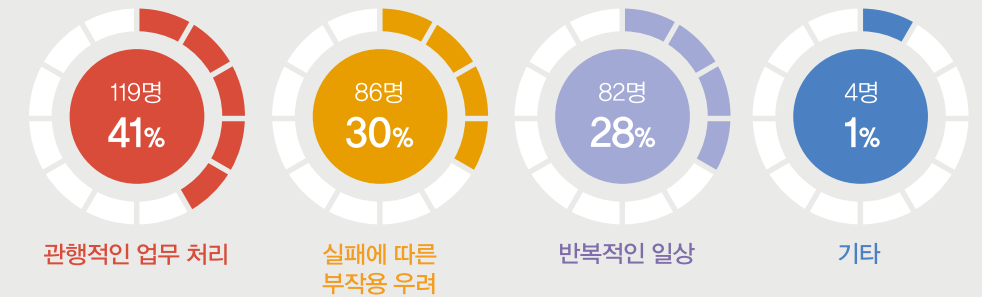


Q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가장 잘 떠오를 때는 언제인가요?



- ◆ 운전 중 담배 피울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 김봉수
- ◆ 회사로 출근하는 20여 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 김영훈
- ◆ 화장실 및 무상무념의 정신세계에서 멍 때릴 때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요? • 유경열

Q 창의력을 저해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불필요한 처리 과정 중의 잡음? 목표는 동일하네 저마다의 생각이 아이디어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 이종철
- ◆ 틀을 벗어나면 중간도 못 할 수 있어 질책을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 김태형
- ◆ 시작 전 주변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주눅이 들 것 같아요. • 정창두

Q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독려하는 타인의 한마디는?

- ◆ 상사는 부하의 아이디어를 경청! 부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기록! 기록한 아이디어를 도전! • 심도욱
- ◆ 지나간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자. • 유민
- ◆ 한번 해봐. 네가 제일 전문가잖아. • 육남석
- ◆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굿 아이디어! • 천경우
- ◆ 정답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눠보자. • 김현상
- ◆ '항상 갈구하라(Stay Hungry), 바보처럼 우직하게(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저 역시 해주고 싶어요! • 전연희
- ◆ 이런 건 우리 OO가 잘하지~! • 조미오
- ◆ 내가 책임질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 김병희
- ◆ 항상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 • 정준욱
- ◆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되게' 만들고,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되게' 한다. • 이충현

일상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는 법

‘어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직장인은 업무를 처리할 때, 개발자는 획기적인 기획안을 준비할 때, 자영업자는 매출을 늘릴 때 고민하곤 한다.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일러스트 정민영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시대.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의력에서 시작되며, 기존 생각과 마인드를 바꿀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 출발선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자

▶ 눈

아이디어는 ‘뇌’에서 나온다. 뇌를 가장 자극하는 것은 역시 눈을 통한 시각적 자극이다. 새로운 장면을 입력해 뇌를 마구 자극해보자.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길로 퇴근한다면 전혀 새로운 자극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출퇴근길을 새로운 시각적 자극의 기회로 삼아보자.

출근길과 퇴근길을 달리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근버스를 탄다면 길가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자. 저기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상상해보는 것도 좋다.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장면, 새롭게 인식하는 주위의 풍경과 사물.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재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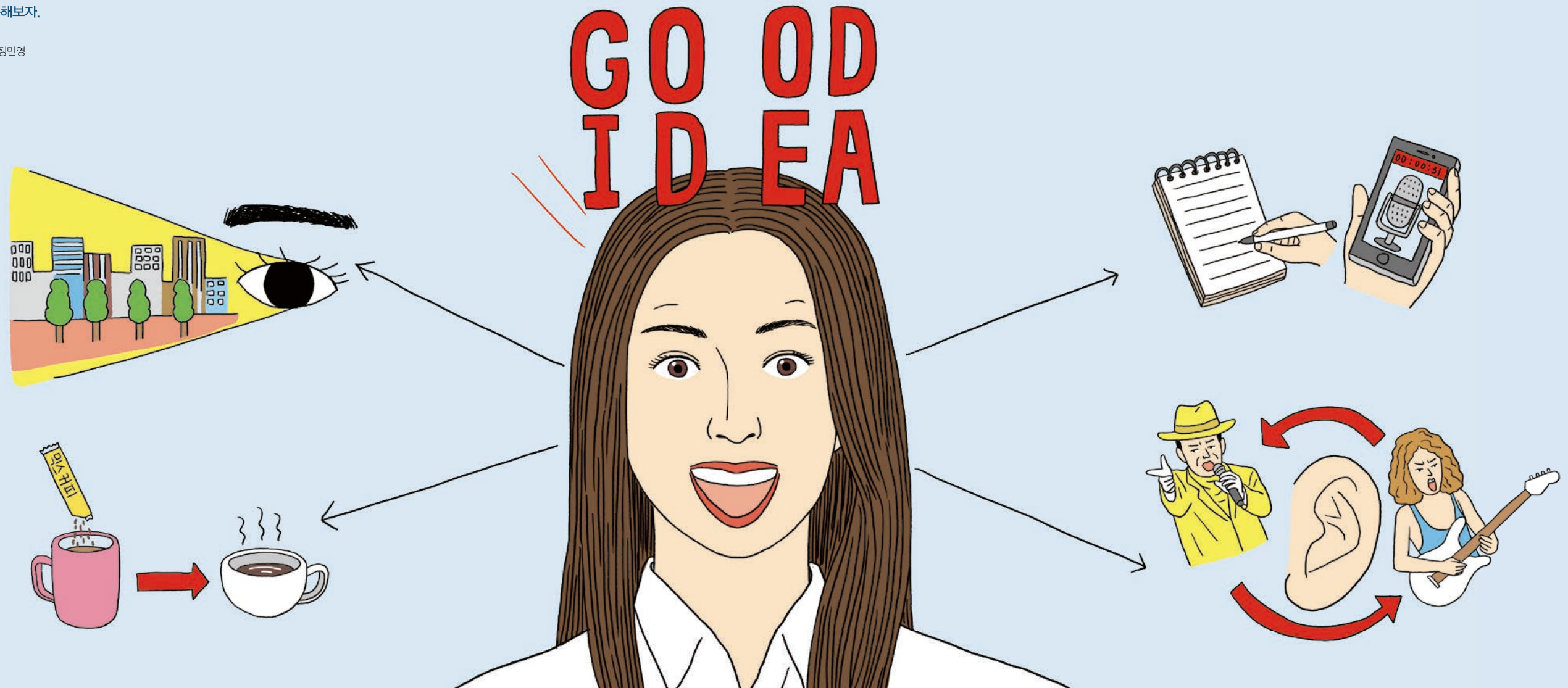
▶ 입

낮선 음식으로 입을 자극해보자. 구내식당의 메뉴는 정해져 있어도 사탕과 커피 같은 기호품은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커피는 역시 달달해야 제맛이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쓰디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건 어떨까. 식사 후 흡연 대신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입을 통한 새로운 자극을 시도해보자.

▶ 귀

정반대의 음악을 골라보자. 평소 즐겨 듣는 음악은 잠시 잊고 내 취향과 다른 음악을 들어보자. 트로트를 좋아한다면 클래식을, 조용한 음악을 좋아한다면 시끄러운 헤비메탈을 들어보는 식이다. 익숙하지 않은 악기 소리와 효과음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새로운 음악이 귀를 통해 뇌까지 닿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씩 반갑게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환경을 만들어보자

▶ 휴대폰을 바꿔보자

지금 휴대폰 매장에 가서 최신 기종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휴대폰의 설정을 바꿔보자는 의미다. 배경화면이 가족사진이나 풍경사진이라면 아이돌 가수나 인기 텔런트 사진으로 변경해보자.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배경화면으로 깔아도 좋다. 벨소리도 매번 같은 멜로디가 아닌 새로운 멜로디가 귓가에 들린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자극이 될 것이다.



▶ 메모장을 준비하자

머릿속에서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를 잡는 방법은 바로 메모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는 있으나 뒷머리가 없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좋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메모가 어렵다면 휴대폰 음성 녹음도 좋다.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잡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 상황을 달리 보자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거나 사내 응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최고 권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부서장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다. 현재 상황, 문제점에 대해 '나'의 시각이 아닌 권위자,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시각이 넓어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다듬어볼 수 있다. 참고로 필자 역시 지금 사보를 읽고 있는 벡센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행동을 바꿔보자

▶ 걷기

걷는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작업공간을 벗어나 필요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잠시 걸어보도록 하자. 수첩 챙기는 것 잊지 말고, 걷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 풀어야 할 숙제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혹시 걷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좁은 공간에서 서성여보자.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있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힘들다는 것. 이제는 알고 있으리라 본다. 걷는 것도 싫고 서성이는 것도 싫다면? 제자리 스쿼트 또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자. 간단한 운동을 통해 몸의 피가 활발하게 돌아 뇌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한다. 운동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좋은 방법이다.



▶ 대화

때로는 대화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동료 · 선배 · 후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잡담을 하다가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듯 갑자기 환하게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생각이 막히면 대화를 해보도록 하자. 단,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 이야기는 상대방과 성향이 다른 경우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직장에서 정치 견해 때문에 동료들과 분쟁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⑩



(창녕) 관리팀 박영하 과장 가족의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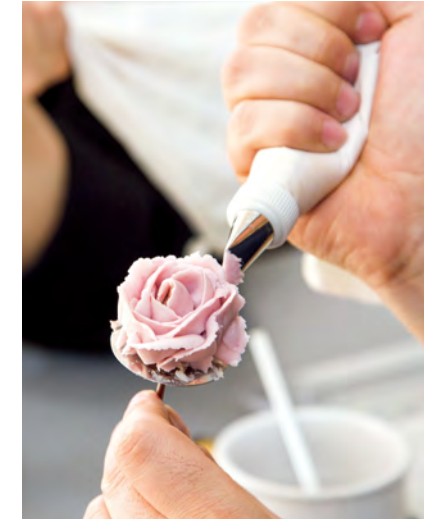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워

소중한 사람과 예쁜 케이크를 나눠 먹는 순간은 항상 특별하다. 서로가 맛있게 먹길 바라며 케이크를 함께 만드는 시간이라면 행복한 기억은 더욱 오래 간직될 것이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꼭 닮은 박영하 과장 가족이 그런 시간을 가졌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촬영협조 삼백예순다섯날(010-3533-6512)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창녕공장 관리팀 박영하 과장과 부인 한정은 씨, 나영이, 서영이를 대구의 한 공방에서 만났다. 평소 해본 적 없는 체험 기회를 갖게 돼 설레는 마음이 네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이들 가족은 케이크 형태 백설기 위에 엮을 앙금 꽃 장식을 만들기로 했다. 꽃의 재료는 강낭콩으로 만든 앙금과 각종 천연색소다. 쑥, 치자, 백년초, 자색고구마 가루 등을 앙금에 넣고 반죽하면 고운 색깔과 은은한 향이 난다. 신기한 듯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가족에게 앙금을 조금씩 덜어줘 맛을 보게 했다.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떡을 좋아해서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돼요.” 정은 씨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체험을 도와줄 이아름 대표가 먼저 앙금 꽃 만들기 시범을 보였다. 앙금 반죽을 짜주머니에 넣고 꽃받침 위에 앙금 꽃 중심이 될 기둥 한 개와 이를 둘러싼 꽃잎을 한장 한장 짜낸다. 조금 전까지 반죽 덩어리였던 것이 차츰 장미꽃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보자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시범이



끝나고 박영하 과장과 정은 씨가 직접 짜주머니를 들었다. 분명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눈앞의 앙금 모양은 생각처럼 잘 잡히지 않는다. “여보 우리 오늘 떡케이크 완성할 수 있을까? 하하하.” 못 다 핀 앙금 꽃을 보고 가족이 함께 웃었다. 선생님의 눈높이 지도를 받으며 연습하기를 수차례, 드디어 박 과장이 두각을 드러냈다. “나영아, 서영아! 아빠가 만드신 꽃 좀 봐. 예쁘다, 그렇지?” 엄마 정은 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으쓱하는 박 과장의 어깨가 한껏 솟아올랐다. 크기와 색깔이 다른 앙금 꽃 여러 송이를 만든 다음에는 백설기 위에 동그랗게 엮는다. 꽃 장식이 잘 보이도록 돔 형태로 배치하고 꽃 사이사이에 쑥가루를 섞은 앙금으로 잎사귀까지 만들어 넣으니 근사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가 완성됐다. 정은 씨와 나영이, 서영이가 케이크를 둘러싸고 감탄하며 인증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예쁘게 리본 두른
떡케이크 상자를 들고
공방을 나서는 가족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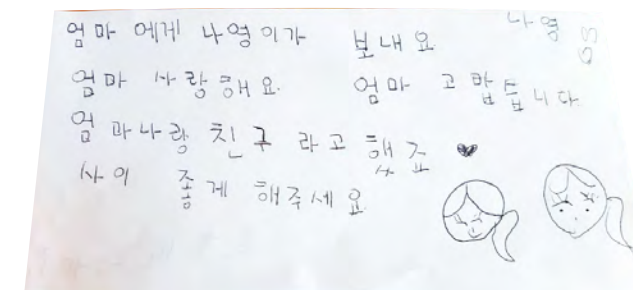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활동적인 나영이와 서영이를 위해 박 과장 가족은 평소 나들이를 즐긴다. 동네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을 자주 관람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대구 시내로 나와 미술관에 들렀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최근 다녀온 바다낚시다. 추운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두 딸을 보느라 낚시는 몇 시간째 허탕만 치던 아빠. 드디어 한 마리를 낚아 올리자 환호성을 지르던 나영이, 서영이를 떠올리며 부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물고기도 잡고 엄마랑 게도 잡았어요.” 서영이가 또박또박 말하고 박 과장이 덧붙였다. “그걸 차에 두고 잇는 바람에 한동안 차만 타면 째조름한 냄새가 나기도 했죠. 하하하.” 부부는 두 딸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놀아준다’가 아니라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박 과장의 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정은 씨가 얼마 전 나영이가 보낸 카드를 자랑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엄마 나랑 친구라고



했죠. 사이좋게 해주세요.’ 부부는 글씨도 서툰고 문법도 틀렸지만 ‘사이좋게 지내자’는 딸의 편지가 재밌기도 하고 정하기도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열어본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영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친구지?” 하고 고개를 가웃거렸다. 서영이가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할 때쯤 다시 한 번 〈헬로우 벅센〉에 출연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될 듯하다. “이번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잘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생각보다 금세 앙금 꽃 만들기에 익숙해졌어요. 다음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추억 만들어준 〈헬로우 벅센〉 고마워요.” 박 과장과 정은 씨가 입을 모았다. 예쁘게 리본 두른 떡케이크 상자를 들고 공방을 나서는 가족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웠다. ㉞





양산공장 압출파트 그린조 F4

취한다 한잔 술에, 우리 우정에!

맛있는 수제 맥주로 유명한 부산의 한 펍에서 양산공장 압출파트 그린조 강연우, 양승천, 박종희, 박성현 사우를 만났다. 스스로 '비주얼 F4'라며 화통하게 웃는 이들의 수다에서 톡 쏘는 청량함이 느껴진다. 그들의 이야기에 광안리의 바닷바람과 맥주가 더해져 하루의 수고가 시원하게 넘어간다.

글 조병래 사진 이명호 장소협조 와일드웨이브(wildwavesbrewing.com)



에디터 근무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모인 네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강연우 네 명 모두 양산공장 압출파트 소속이에요. 그린조에서 항상 같은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이죠.

양승천 워낙 친한 사이라 근무 끝나면 틈틈이 모여서 한잔 하고 집에 가기도 하죠. 술도 아주 좋아하고요.

박종희 게다가 박성현 사원과 저는 넥센타이어 입사 동기예요. 그 당시 압출파트에 다섯 명이 함께 입사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둘이 남았지요. 남다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박성현 맞아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이예요. 딱 봐도 'F4' 아닙니까? 하하하. 오늘은 특별히 수제 맥주를 맛보러 왔는데 분위기가 좋네요.

강연우 제 맥주는 새콤한 맛이 나네요. 이름이 '설레임'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맛인가 했는데 아주 새로워요.

양승천 과일 향 나는 이 맥주는 이름이 뭔가요? IPA? 제 입맛에 딱 맞네요.

박종희 소주만 먹다가 수제 맥주 먹어보니까 색다르죠, 형님?

강연우 지금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술까지 곁들이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양승천 **박종희** 같은 생각이예요. 술은 즐겁게 마셔야죠.

박성현 여기 세 분은 다 술을 잘 드세요. 저는 술이 약해서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캠핑 갔다가 처음으로 술에 취해본 일이 생각나네요. 땅이 올라오고 하늘이 내려오는 것 같았죠.

양승천 지금도 혼자 취한 것 같아! 하하하. 성현이는 모든 일을 항상 열심히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의욕이 대단하거든요.

박종희 맞아요. 성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같이 일했기 때문에 업무 호흡이 잘 맞아요.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 N-Talk Hall 정기 강연

넥센의 얼굴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서울사무소가 2월 21일 넥센 강남타워 1층 엔톡홀에서 ‘비즈니스 매너 & 에티켓’을 주제로 N-Talk Hall 정기 강연 ‘두 번째 이야기’를 열었다. 100여 명의 임직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이 넥센의 얼굴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넥센인이 지녀야 할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이 무엇인지 이날 강연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김현지 사진 김길수



매너와 에티켓은 다르다

강연의 세부 주제는 ▲Business Manners ▲Action ▲Contract Good Habits였다. 매너는 ‘행동방식이나 태도’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습관, 행동양식, 몸가짐이다. 이번 강연 연사로 나선 장지원 넥센타이어 차펜 에이전트 대표는 에티켓과 매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에티켓은 프랑스 궁중 법도·규칙이 까다롭던 시절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있다’, ‘없다’로 구분됩니다. 매너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치중되며 ‘좋다’, ‘나쁘다’로 구분합니다.” 에티켓은 무언의 법칙과 같아 안 지켜질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매너가 잘 지켜지면 훈훈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는 “매너는 사랑 애(愛),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넥센인에게 맞는 매너와 에티켓이 궁금하던 찰나 장 대표는 “내외부 고객을 맞을 때는 흰 셔츠, 정장 바지, 구두 등의 비즈니스 복장을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 하고, 인사할 때는 진실한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당당하고 씩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던 일상 속 풍습을 각자의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말

에 수긍했다. 장 대표가 실제적인 예시 위주로 말하자, 임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펜과 노트는 잠시 접어두고 그의 말에 더 빨려 들어갔다.

매너인이 되는 첫걸음 ‘사랑’

“넥센인이 매너인이 되기 위해선 상대를 향한 배려, 즉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매너를 직장인에게 적용하면 먼저 사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메모장은 있는지, 회사 비품을 과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파일링 정리와 잠금 장치로 기밀문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매너는 지식에 광채가 나게 하고, 처신에 원활함을 준다”는 필립 체스터 필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넥센”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몽글한 감정이 솟았는지 넥센인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강연이 끝나자 나오는 우레 같은 박수 소리는 강연의 성공을 알려주었다. 무한경쟁 시대에 현대인에게 자기계발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멀리 갈 것도 없다. 앞으로도 <헬로우 넥센>이 유용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할 것이다. ㉞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넥센타이어의 7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손으로 그려갈 넥센타이어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반짝일 것입니다.



2017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 개최

넥센타이어의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2월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2017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가 열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는 한 해 동안 고객 접점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거래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채널별 수상으로 확대해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거래처들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글 정재환(마케팅) 사진 서정운(마케팅)

2017년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사업의 번창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소통하는 문화, 현장 중심 영업

시상식은 강병중 회장, 강호찬 대표이사의 축사와 함께 황동진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대한민국에서 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에 한국 시장은 저에게 남다른 애착을 갖게 합니다. 수상자 전원에게 부상으로 해외 견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엔페라, 윈터, B2B 부문 등 특별상을 확대한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며 우렁찬 박수가 쏟아진 순간이었다.

환영사가 마무리되자 샌드아트로 공개된 2016년 넥센타이어의 발자취! 낱알의 모래가 흩뿌려지면서 우리가 노력해온 지난해의 모습을 그려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넥센타이어의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메시지로 빛과 모래의 예술이 귀결되고, 자리에 서는 뜨거운 갈채가 쏟아졌다.

2017년 한국 지역 전략 발표에서는 ‘함께 소통하는 문화와 현장 중심 영업’을 강조했다. 글로벌 OE영업 부문 발표에서는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 공급 계획이 이제는 미래가 아닌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그동안 성장한 넥센타이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행사 진행이 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행사장은 감동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엔페라 신제품 발표 & 우수 대리점 시상

이어 국내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 엔페라 AU7의 발표 순서가 돌아왔다. AU7에는 넥센타이어의 특허받은 기술인 흡음재가 장착되고, 외부 상처에도 고떡없이 달릴 수 있는 실란트(Sealant)가 적용됐다. 특히 안전성에도 특화돼 브레이킹 거리가 현격히 줄어든 명품 중의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신제품의 탁월한 성능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때,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각 테이블에 넥센타이어 캐릭터인 ‘넥싱이’가 등장했다. 3D로 만들어진 넥싱이가 신제품 설명을 이어나가자 사람들의 표정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너도나도 손에 지닌 휴대폰으로 신기한 광경을 기록하기 바빴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이날의 하이라이트, 시상식이 시작됐다. 시상식은 지역별·채널별 시상식에 이어 지역 대상·특별상·통합 수상과 명예의 전당, 통합 대상 순서로 이어졌다. 한명 한명 단상에 오르는 수상자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아쉬움, 새롭게 맞이할 내일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엮보였다.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자리

이제 단 하나 남은 대상 수상자 발표! 먼저 대상을 축하하는 거래선 직원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고 황동진 부사장의 우렁찬 발표가 이어졌다.

“2017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 대상! 넘버원타이어 김윤희!”

호명과 함께 상단에 축하를 알리는 현수막이 펼쳐졌고, 김윤희 대표를 꼭 닮은 대형 공기인형이 수상자를 반겼다. “작년에 금상을 받았을 때, 내년에는 꼭 대상을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감 발표와 함께 모두의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졌다. 대상 수상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 그간 고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격려의 박수였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자리를 바

탕으로 2017년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사업의 번창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황 부사장의 건배사를 끝으로 행사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 저녁 만찬과 함께 초청 가수의 공연에 흠뻑 빠져 있을 즈음, 행복이 가득한 모든 이들의 표정에서 앞으로 더욱 빛을 더해갈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넥센 골든타이어 어워즈’.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마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민 손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용기가 되고 행동을 만들어가는 원천인 것처럼, 넥센타이어 시상식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바람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나고 마컴팀은 바로 고민에 빠졌다. “내년엔 또 뭘 하지?” ❷

넥센 히어로즈에 부는 새바람



넥센 히어로즈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넥센타이어의 스포츠마케팅 동반자인 히어로즈는 새 사령관 선임과 새 투수 영입 등을 통해 발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 그 발걸음을 쫓아봤다.

글 김남혁(전략마케팅팀) 사진 넥센 히어로즈/서울시설공단



새 사령관 '장정석 감독'

넥센 히어로즈는 창단 후 10번째 시즌을 앞두고 큰 변화와 개혁을 택했다. 올해의 변화는 대표 · 단장 · 감독을 구단의 역사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단 내부 인물들로 바꾼 것. 우선 넥센 히어로즈의 제4대 사령관으로 장정석 감독이 선임됐다. 장정석 감독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 프런트의 길을 택했고, 기록원을 거쳐 선수단 매니저 · 운영팀장을 맡아왔기에 선수와 코치진 그리고 구단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리드하기에 적격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신 유행인 프런트 출신 감독이 한국에도 등장한 깜짝 발탁 사례였다. 프런트 출신 감독이 최근 대세가 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장과 프런트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한국 야구에서도 원활한 소통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정석 감독은 “가급적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소통으로 코치진과 선수단, 프런트가 합심해 앞으로 닥칠 다양한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면서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며, 우리 코치진은 선수들이 꽃을 피울 토대를 마련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시즌 전망과 주목할 선수

2016 시즌 넥센 히어로즈는 투타의 주축 대부분이 동시에 이탈하는 이례 없는 전력 공백을 경험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넥센 히어로즈를 하위권으로 분류했지만, 넥센 히어로즈는 새로운 선수들의 패기와 기존 선수들의 경험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 정규 시즌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각종 프로야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쓴 신재영이라는 깜짝 스타가 등장해 넥센 히어로즈의 마운드를 이끌었다.

2017 시즌에는 새 외국인 투수 오설리반을 영입했고, 지난해 복귀와 동시에 건재함을 과시한 벤헤켄, 부상으로 재활 중인 조상우와 한현희가 선발투수로 5월 이후 복귀가 예정돼 있다. 또한 지난해 큰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박주현 투수와 든든한 버팀목인 김세현 마무리 투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넥센 히어로즈는 구단 사상 역대 최고의 투수진을 보유하게 된다. 넥센 히어로즈에서 새 출발을 하는 김태완이 실력을 제대로 펼친다면 장타력 또한 보강된다. 지휘봉을 잡은 장정석 감독은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감독이 되고 싶다”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구단 스태프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넥센 히어로즈가 더 재밌는 야구, 공격적인 야구를 구사하고, 언제나 즐겁게 야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번 시즌의 포부를 밝혔다.

국내 첫 돔 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사용

넥센 히어로즈는 2016 시즌부터 목동 야구장이 아닌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1만 7,000명의 야구팬이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장은 좌·우 펜스 99m, 중앙 펜스 122m로 국내 프로야구 구장 평균 정도 되는 크기다.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은 목동 야구장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선수들이 개인 훈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더욱 좋아졌다. 무엇보다 돔 구장의 최대 장점은 더울 때 덥지 않게, 추울 때 춥지 않게 야구 경기를 한다는 것이다. 구장 온도는 25℃에 맞춰져 있어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용이하다. 시즌 중 가장 더웠던 7월에는 14승 7패로 1위를 차지하고, 10개 구단에서 홈 경기 승률도 두 번째로 높았다. 2016 정규시즌 3위라는 성과를 낸 배경에는 고척스카이돔이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다.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내에는 넥센타이어 홍보관과 VIP 초청을 위한 넥센타이어 전용 스카이박스 있다. 홍보관에는 당사의 기술력이 담긴 타이어가 전시돼 있어 야구장을 찾은 팬뿐만 아니라, 콘서트 등이 있을 때도 고척스카이돔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연중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전용 스카이박스는 VIP 특성에 맞게 독립된 공간과 프리미엄 케이터링,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편안하게 야구 관람이 가능한 프리미엄 공간이다. 내부 인테리어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하기 적합하게 구성돼 있어 당사의 주요 VIP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숨은 시민 영웅 찾는 ‘이달의 히어로’

2016 시즌부터 넥센타이어와 넥센 히어로즈가 공동으로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숨은 ‘시민 영웅’을 찾아 선행을 두루 알리고 공로에 감사하는 취지로,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지속성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작년 한 해 히어로로 선정된 총 7명의 시민 영웅에게는 넥센 히어로즈 홈 경기의 시구와 시타 기회, 후원

금, 표창장, 넥센타이어 교환권 등을 부상으로 후원해 용기 있는 선행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히어로즈’라는 이름에 맞게 앞으로도 사회의 모범이 되는 용감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 숨은 영웅들의 선행 사례를 찾아서 알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㉞



JUST 10Minutes

즉석식품으로 만드는 즐거운 한 끼

‘일요일엔 짜장라면’인 시대는 지났다. 요리에도 창의성이 필요하다. 찬장에 가득 쌓아둔 인스턴트식품으로 개성을 발휘해보자. 맛과 향은 기본, 비주얼도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소소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당신이 이연복이고 백종원이다.

자료협조 <편의점을 털어 만든 집밥 한 끼> 아카데미북
저자 문진희 사진 기성울



마파두부덮밥

재료

즉석밥 1개, 두부 1/2모(150g), 쪽파 2대,
시판 마파두부 소스 1팩, 참기름 1작은술,
물 50ml(1/4컵 = 3큰술),
식용유 ·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만들기

- 1 두부는 2×2cm 크기로 자르고, 쪽파는 송송 썰어요.
- 2 두부는 기름 두른 팬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골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요.
- 3 2의 구운 두부에 소스와 물을 넣고 끓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요.
- 4 데운 밥에 3을 올리고 쪽파를 뿌려주세요.



라면오코노미야키

재료

라면 1/2개, 양배추 ·
베이컨 2장씩, 양파 1/4개,
쪽파 3대, 달걀 1개,
부침가루 1/2컵,
물 1/4컵, 데리야키 소스 ·
마요네즈 2큰술씩
가쓰오부시 · 소금 · 후춧가루 ·
식용유 약간씩

만들기

- 1 양배추, 양파는 채썰어요.
- 2 쪽파는 송송 썰어요.
- 3 베이컨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요.
- 4 라면은 삶다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체에 건져요.
- 5 볼에 부침가루, 달걀, 물, 소금, 후춧가루를 섞은 뒤 ❶, ❷, ❸, ❹를 모두 넣어 섞어요.
- 6 기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 접시에 담고 데리야키 소스, 마요네즈, 가쓰오부시, 쪽파를 뿌려주세요.



베사멜 소스 만들기

소스 팬에 버터(1큰술), 밀가루(1큰술)
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요.
우유(1/2컵)를 조금씩 넣어가며 요거
트 정도 농도가 되면 소금, 후춧가루
로 간을 맞춰주세요.

옥수수피자

재료

토르티야 2장,
캔 옥수수 · 모차렐라
치즈 1컵씩,
베이컨 2줄(80g),
슬라이스 치즈 1장,
마요네즈 2큰술,
소금 약간

만들기

- 1 토르티야 위에 마요네즈를 발라요.
- 2 베이컨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 팬에 바싹 구워요.
- 3 슬라이스 치즈는 6등분해요.
- 4 토르티야 → 마요네즈 → 옥수수 → 모차렐라 치즈
→ 토르티야 → 마요네즈 → 옥수수 → 모차렐라 치즈
→ 베이컨 → 슬라이스 치즈 순으로 올려 전자레인지에
7~8분간 돌려주세요.



TIP 오븐에서 구워 주면 모차렐라 치즈가 노릇해져 식감이 좋아져요. 마요네즈 대신 베사멜 소스를 발라 주면
고소한 맛이 더 깊어져요. 완성된 피자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 주면 더욱 먹음직한 피자가 됩니다.

컬러풀 봄꽃 여행

봄나들이
가실
준비
되셨나요?

남녘에서부터 시작된 봄바람이 어느덧 내륙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동백꽃과 매화, 산수유를 시작으로 4월에는 전국이 벚꽃으로 물들 테니까요. 벚꽃잎이 휘날리면 진달래와 철쭉이 다음 차례를 기다릴 테지요. 냇가에 핀 버들강아지도 수줍은 꽃망울을 틔워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봄 내음을 한껏 맡아보고 봄의 전령사가 속삭이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보세요. 어서 빨리 봄나들이 떠나라는 소리가 들리나요?

글 박진호 사진 여행스케치



국내 최대 산수유 정원 구례 산수유꽃축제 vs 비밀의 산수유 화원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

전국 산수유의 70%가 나는 전남 구례. 국내 최대 산수유 산지답게 산수유 꽃이 만개하는 봄마다 성대한 꽃잔치 한마당이 벌어진다. 봄벌 아래 셋노랑계 물이 오른 산수유 꽃만 보아도 만족스러운데, 지리산 온천수를 이용한 산수유 족욕과 산수유 막걸리 시식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꽃으로 둘러싸인 산수유 꽃담길과 산수유 수석공원 등 파근파근한 ‘신상’ 여행지도 새로 조성됐다. 산수유사랑공원, 산수유문화관 등 중간중간 눈 호강과 다리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휴식처도 많으니 지치지 않도록 쉬엄쉬엄 둘러보시길. 봄에 산수유 꽃 피는 곳이 어디 구례뿐이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도립리·경사리·송말리도 매년 3·4월이 되면 산수유 꽃 화원이 된다. 이천 산수유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면 이천 시내에서 이포 방향으로 가는 국도 70호선(구 383번 지방도)만 한 코스가 없다. 도로를 따라 7분 정도 달리면 도립리 입구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 마을을 포함한 일대가 산수유 군락지다. 마을 안팎이 봄꽃 명소다 보니 마을 주민 모두가 축제 도우미로 나섰다. 순박한 지역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근래 보기 드문 ‘시골 인심’을 담백 느껴보자.

구례 산수유꽃축제
기간 3월 18~26일
장소 전남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일원
문의 061-780-2727, <http://sansuyu.gurye.go.kr/sanflower/>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
기간 4월 7~9일
장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마을회관 일원
문의 031-633-0100, www.2104sansooyou.com



가까워서 좋다 서울 한강여의도봄꽃축제 vs 멀어도 간다 창원 진해군항제

꽃비 맞으며 서울 한복판 도로를 거닐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한강여의도봄꽃축제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5분이면 벚꽃 날리는 축제장에 도착. 평소엔 차가 썩썩 달리는 윤중로지만 축제 기간에는 두 발로 느긋하게 걸을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 캐릭터 퍼레이드, 꽃마차 등 다양한 볼거리도 구경하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솜사탕도 뜯어보자. 시원한 한강 바람에 날리는 꽃비가 딱딱한 도시 생활에 심표를 찍어준다. 서울 한강여의도봄꽃축제가 가까운 맛이려면,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하는 세계 최대 벚꽃축제 창원 진해군항제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달달한 맛으로 맞선다. 빼곡한 벚꽃 그늘 아래 철길 따라 걸을 수 있는 경화역, 연인이 손을 잡고 걸으면 결혼에 성공한다는 여좌천 로망스다리, 1.5km 벚꽃터널 길을 걸어 남해를 굽어볼 수 있는 장복산조각공원은 벚꽃이 피는 시기에 꼭 한 번 둘러야 할 명소. 잔잔한 바다에 둘러싸인 새하얀 벚꽃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제황산 모노레일도 놓치지 말길.

창원 진해군항제
기간 4월 1~10일
장소 경남 창원시 중원로터리 등 진해구 일원
문의 055-225-2341, <http://gunhang.changwon.go.kr/main/main.jsp>
요금 제황산 모노레일 왕복 3,000원.
편도 2,000원(타 지역 주민 기준)

서울 한강여의도봄꽃축제
기간 4월 중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
문의 02-2670-3140



튤립

알콩달콩 연인과 함께 태안 세계튤립축제 vs 도란도란 가족끼리 신안 튤립축제

태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튤립 등잔’에 불이 붙는다. 태안 세계튤립축제가 열리는 네이처월드 일대에 1억 송이 튤립이 피어 있는 광경을 보면 멀미가 날 지경. 올해는 ‘튤립!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멋과 전통을 살린 방패연을 필두로 국보 1호 남대문, 프랑스의 에펠탑, 네덜란드의 풍차,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그려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프리포즈를 하고 싶은 연인이려면 꽃밭의 작은 음악회를 감상하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보라색 튤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며 잊지 못할 둘만의 추억을 남겨보자. 튤립축제 하면 신안 튤립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튤립 500만 송이가 알록달록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튤립단지를 돌아보는 승마 체험을 해도 좋고,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꽃구경을 즐기는 우마차 투어에 참여해도 좋다. 그밖에도 트랙터 타고 모래밭 여행, 튤립 아로마 향초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㉞



태안 세계튤립축제

기간 4월 13일~5월 10일

장소 충남 태안군 마검포길 200 네이처월드 일대

문의 041-675-7881, www.festival.co.kr

신안 튤립축제

기간 4월 7~16일

장소 전남 신안군 임자면 신안튤립공원

문의 061-240-4041~3, http://tour.shinan.go.kr



아름다운 그대의 이름을 알려주오

봄꽃 작은 사전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는 돈독해진다.
오늘 아침 화단에 오붓하게 피어
눈인사 나눈 그 꽃, 지난 주말
등산길에 수줍게 웃음 짓던 그
꽃이여, 나 그대에게 반했으니 부디
이름 좀 알려주오~.



고깔제비꽃

가는 대에 소담하게 맺힌 자줏빛 꽃잎. 시인 김승기는 고깔제비꽃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다. ‘꽃만 덩그러니 변변한 줄기 하나 없는 부끄러움. 고깔을 싸아졌어요.’ 이른 봄에 피는 고깔제비꽃은 어린잎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고깔 모양이 된다는 뜻에서 이름에도 고깔이 쓰였다.



노랑무늬붓꽃

흰 블라우스에 노란 스카프를 두른 차림새. 세상에 나 홀로 꽃을 피우는 듯한 독보적인 존재감. 우아를 떠는 한 송이 자태가 꽃 중에서도 정숙한 숙녀급이다. 얼마 전까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최근 서식지가 많이 발견되면서 해제되었다.



오대산괘이는

높은 산의 응달이나 고목 주변에서 자란다. 꽃이 필 적엔 주변의 잎까지 노란색으로 물든다. 잎 색깔은 꽃가루받이가 끝난 후에 다시 녹색으로 돌아간다. 잎은 줄기의 한 마디에 한 장씩 달려 있고, 풀잎의 톱니가 가늘고 뾰족하다. 휴전선 이남의 백두대간 하리 부분에서 만날 수 있다.



백선

헐헐 나는 나비를 본뜬 듯 역동적인 모양새가 시선을 끈다. 향이 곱지 못한 게 유일한 흠이랄까. 뿌리는 백선피(白鮮皮)라는 약재로 알려져 있어 야생에서의 훼손이 심한데, 사실 뿌리의 심 부분에는 강한 독성이 있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식물이다.



변산바람꽃

‘급하기도 하셔라. 누가 그리 재촉했나요. 반겨줄 임도 없고, 차가운 눈, 비, 바람 저리 거세거늘.’ 이승철의 시처럼 엄동설한부터 내린 눈을 비집고 봉오리를 맺는 변산바람꽃. 화려한 몽우리가 가냘픈 줄기에 비해 과분해 보인다.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산지, 섬 지방에서 고루 핀다.



세잎양지꽃

노란 양탄자가 깔린 것처럼 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며 산과 들, 길가의 언덕, 빈터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별이 잘 드는 양지를 좋아하지만 강한 추위나 더위, 건조한 환경에서도 고떡없이 건디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자생지는 남부지방에 집중돼 있고 제주도에서도 꽃을 피운다.



왜현호색

따스한 봄바람에 입을 맞추려는 것일까. 긴 통형 태의 화관 끝에 빼죽 내민 입술이 애교스럽다. ‘왜’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왔거나 다른 식물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경우에 붙이는데, 왜현호색은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덩이줄기는 한방 전문 약재로 쓰이지만 독성이 많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처녀치마

줄기 끝에 3~10개의 꽃이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자란다. 열었던 땅이 해동됨과 동시에 잎이 지상으로 올라온다. 치맛자락풀, 성성이치마, 난장이 처녀치마 등으로도 불리며, 생김새가 화려한 스커트를 닮아, 무어라 부르든 ‘치마’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는다.

봄을 이기자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오면 그동안 꽂꽂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는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지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는다.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글 김지혜

☀️ 간질간질, 꽃가루 알레르기

봄철 불청객 중 하나인 꽃가루는 바람에 의해 날리기 때문에 주변에 꽃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은 가볍게 콧물을 흘리거나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은 참나무 · 자작나무 · 삼나무 · 느릅나무 · 소나무 · 버드나무 등이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예민한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피부 질환까지 불러일으키므로 각각의 증상을 잘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호흡기 질환 :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꽃가루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맑은 콧물, 재채기, 코와 눈 주위 가려움증, 코막힘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발열은 없지만 지속 기간이 길어 중이염 · 부비동염 · 인후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천식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외부 알레르기 물질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진다. 가쁜 숨을 쉬거나 심한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 안과 질환 : 알레르기 결막염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 등이 원인이 되어 눈 부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주요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이 가렵고, 결막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많이 나면서 눈곱이 많이 낀다. 또 눈 주변이 화끈거리거나 눈꺼풀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 피부 질환 : 아토피 피부염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발진이나 발열, 부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종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는 황사를 접했을 때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황사 vs 미세먼지 vs 초미세먼지

황사는 꽃가루 알레르기만큼 우리 몸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불편한 손님이다. 중국 서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중국을 거치면서 미세먼지를 동반한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공기 오염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지름 20 μm 이하 크기의 모래 먼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	지름 10 μm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 연료 등을 통해 배출. 황사, 산염, 질산염 등 유해 물질을 포함.	지름 2.5 μm 이하의 먼지로 호흡기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인체의 면역 기능을 무너뜨리고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 μm = 1000분의 1mm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행동 요령
80~120 μg	50~100 μg	- 실외 활동 시간 줄임 - 황사 마스크 권장
121~300 μg	101~200 μg	- 황사 마스크 필수 - 환자 · 노약자 실외 활동 자제
301 μg 이상	201 μg 이상	- 환자 · 노약자 실외 활동 금지 - 장시간 외출 금지

* μg = 100만분의 1g

▶ 대기오염 피해 예방법

꽃가루 · 황사 · 미세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야 한다. 바람이 불 때는 꽃가루 · 먼지가 특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나 안경을 착용해 꽃가루를 차단하고, 외출 후에는 옷과 신발에 붙은 먼지나 꽃가루 등을 꼼꼼히 털어야 한다. 얼굴이나 손, 머리 등 노출되는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되도록 실내는 창문을 닫아두고 공기청정기로 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좋다. 온도는 18~22℃, 습도는 50% 전후의 환경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 및 황사 농도는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쏟아지는 잠, 춘곤증

몸에 기운이 없고 잠을 쫓으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셔도 가시지 않는 춘곤증. 우리 몸이 따뜻한 봄 기후에 적응하면서 호르몬, 중추신경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춘곤증 극복 방법

1. 하루 세 끼 챙겨 먹기

봄이 되면 활동량이 많아져 여러 영양소의 필요량이 늘어난다.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기 쉽다.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기에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좋다.

2. 수시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하기

사무실에서도 2~3시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해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면 나른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점

심 후에도 바로 의자에 앉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 잠깐의 단잠은 업무 능률 향상과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3. 일정한 수면 리듬 유지하기

불규칙한 취침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한창 활동해야 하는 낮에 춘곤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일정한 리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는 뇌를 교란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커피 · 음주 · 흡연은 삼갈 것

졸려서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음주는 피곤함을 더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음주와 흡연은 최대한 자제하고 카페인 대신 음료 대신 자극이 덜한 매실차, 허브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다.

☀️ 식탁의 보약, 봄나물

봄에는 겨울철의 최고 10배까지 더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다.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비타민 B와 C가 효과적이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으로는 시금치, 돼지고기, 팔이나 강낭콩, 잡곡밥, 달래, 쑥갓, 미나리, 우엉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에는 비타민 B와 A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해소와 눈 건강에 좋다.

▶ 미나리

미나리는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 또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도 풍부한 미나리를 섭취하면 해독 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두릅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A와 C, 칼슘, 섬유질 함량이 높아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 좋은 음식이다. 특히 사포닌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환절기에 떨어지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매우 좋다.

▶ 취나물

취나물은 단백질과 인, 철분, 비타민 등의 성분이 풍부해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에 기운을 북돋는다. 간 기능을 북돋워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뛰어나고, 입맛이 없거나 만성 피로를 느낄 때 먹으면 좋다.

▶ 쑥

쑥은 피를 맑게 하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칼륨이나 칼슘 등 무기질이 많고 비타민 A가 풍부해 춘곤증뿐만 아니라 봄철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 냉이

냉이는 성질이 따뜻하고 간 기능을 좋게 하며, 이뇨와 해열 작용도 뛰어나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등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냉이를 먹으면 나른한 봄에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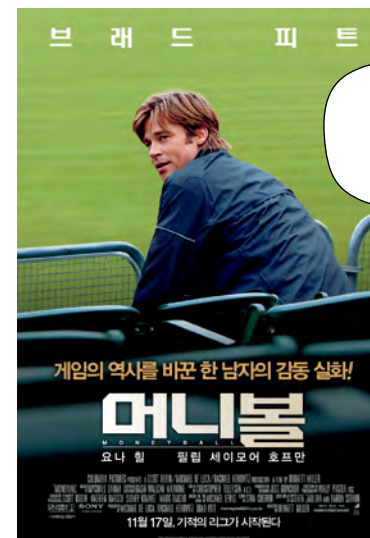
WINNER

핵심은 분석을 통한 통찰력 창조 경제적 혁신 스토리 영화 BES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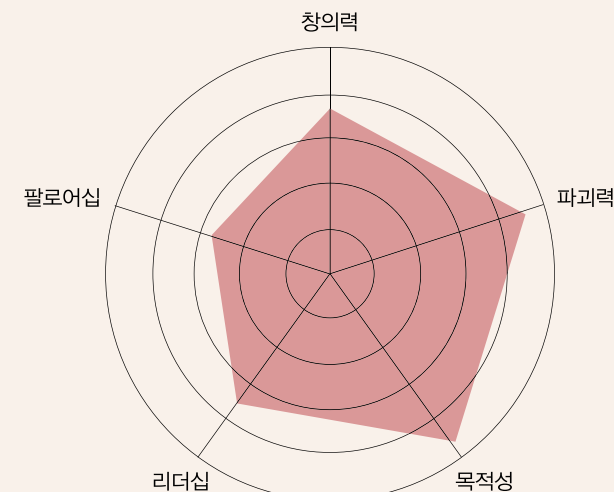
혁신은 결과론적 단어다.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망상이다. 혁신은 관습과 상식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실패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따라서 무모한 도전이 혁신이 된 사례를 영화화한 작품 3편을 골라봤다.

글 이영환 칼럼니스트

1위 데이터, 통계, 분석, 아멘 머니볼 Money Ball



진화형
관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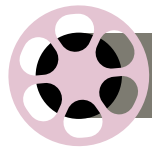
이 영화는 1998년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 '오 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으로 빌리 빈(브래드 피트)이 부임하면서 '세이버메트릭스'라는 새로운 스포츠 이론을 정착시키는 이야기를 다룬다. 통계를 병적으로 신뢰한 이 지독한 통계학적 관료론은 리그 최하위 성적만 거두던 팀을 무려 5번이나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킨다. 14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20연승이라는 타이틀도 따낸다.

당시 '세이버메트릭스'는 위험천만한 전략으로 치부됐다. 선수의 성적과 경기 데이터만을 통계화하여 야구에 접목했기 때문이다. 통계만 볼 뿐 자기 팀 경기도 잘 보지 않았다. 소위 직감이나 선수의 성장 가능성 등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도 배제했다. 객관적 데이터로 선수를 평가하므로 과소 평가된 좋은 선수 영입에 효과적이었지만, 조직과 언론, 구단의 반발과 의심에 부딪혔다. '혁신'이라는 것이 아이템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조직의 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 영화의 이야기를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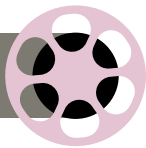
약해 기업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가 제안한 '혁신'이라는 아이템이 조직 내에서 편견 없이 인식돼야 한다. '혁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개 기존 질서나 관습을 파괴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논의를 조직이 함께 해야 한다. 논의를 통해 설득력이 갖춰질 때 임원에게 보고 가능할 것이며, 이를 보고받은 임원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편견 없이 '혁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머니볼〉 속 조직은 비교적 양호한 과정을 통해 '혁신'을 발전시켜 간다. 강한 리더십과 조직의 침묵(?) 또는 양비론적 지지를 바탕으로 말이다. 물론 건전한 소통은 아니지만, 한국의 관료 조직에서는 이나마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합격점이다. 언론과 구단, 팀원은 물론, 사랑하는 딸에게마저 "아빠 회사에서 잘린다며?"라는 의심과 책망을 받는 혁신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감상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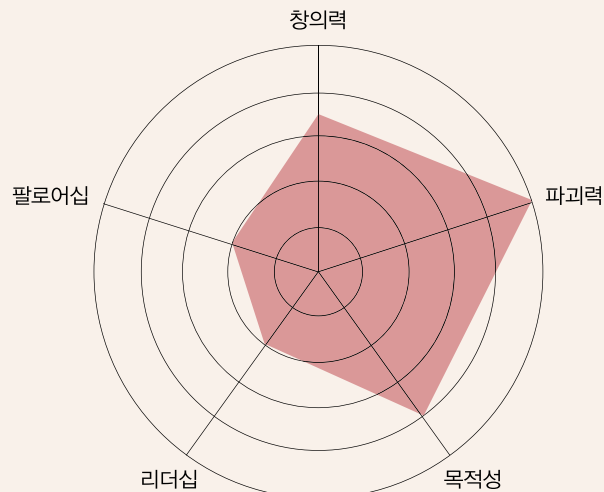
개봉 : 2011년
감독 : 베넷 밀러
러닝타임 : 133분
출연 : 브래드 피트, 조나 힐,
로빈 라이트 외



2위 숫자가 모든 걸 말한다! 빅쇼트 The Big Short



괴짜형 분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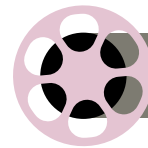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영화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첫 문장이다. 이 영화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의 수많은 ‘혁신’이 등장한다. 다만 그것이 기만 또는 무지의 형태로 노출돼서 문제지만. 한 예로 루이스 라니에리가 주택저당증권(민간 MBS)을 만들어 부호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때나, 마이클 버리가 양심의 가책 없이 “미국 경제가 망하는 데 내 돈 몽땅 건다” 식의 베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찌됐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속 이야기에서 기필코 순기능만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장점은 바로 ‘차별적 통찰력’이다. 금융투자사 대표 마이클 버리는 월가를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도 의심하지 않는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의심한다. 어느 누구도 이 방대한 규모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맹신할 때 마이클 버리는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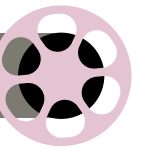
자 그 데이터를 모두 검수해낸다. 그러곤 말한다. “이 상품은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이라고. 마이클 버리는 그 후 빅쇼트(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금융 용어), 다시 말해 미국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쪽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 승자의 왕관은 아시다시피 자신의 회사 사이언 캐피탈의 가치를 +487%로 끌어올리고 25.9억 달러의 씹쓸한 수익을 남긴 마이클 버리에게 돌아간다.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집요함과 데이터에서 메시지를 끌어내는 차별적 통찰력이 그의 예측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결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에 의심을 품는 것. 공신력을 불신하는 건전한 사고력과 성실한 의지를 갖추는 것. 혁신은 확신을 경계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시사한다. 영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긴박감 넘치고 각본도 흥미로우니 꼭 보시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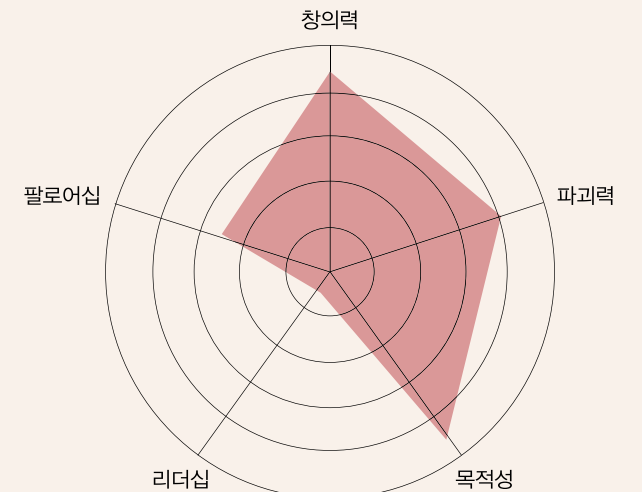
개봉 : 2016년
감독 : 아담 맥케이
러닝타임 : 130분
출연 :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카렐,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3위 너흰 멍청이. 나만 천재 잡스 Jobs



고집불통 전설론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휴대폰, 다시 말해 타 브랜드 간 범용성이나 호환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싸가지 없음을 탑재한 아이폰만의 그 자신감(또는 자기애)은 마치 스티브 잡스의 면면을 고대로 빼다 박은 듯하다. 이 영화를 보면 자기 전설에 취한 자기에 그리고 남들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아집 등을 경계할 수 있는 자아 비판의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의 굳건한 신념과 혁신을 통한 자기 철학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을 듯 하다. 스티브 잡스는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었던 친구들에게조차 특유의 모순된 성격과 인색함으로 외면받은 인물이다. 아이폰이 그렇듯(?) 그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다. 잡스는 조직 간 불화를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1984년 IBM에 대항하여 출시한 매킨토시 컴퓨터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지만, IBM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자 매출이 급속히 줄

어든다. 잡스의 독특한 스타일과 분위기로 매킨토시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뒤늦게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현실성 없는 망상가이자 조직 간 불화를 방치한 문제아, 그리고 회사를 도탄에 빠뜨린 인사로 지목되어 잡스는 1985년 5월 경영 일선에서 쫓겨난다. 시간이 흐른 후 잡스가 애플로 복귀했을 당시 한 직원이 “폰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식의 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영화 속 사례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이상적 혁신가이자 강박적 리더인지 보여준다. 혁신과 변화에는 좋은 아이템뿐만 아니라 조직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건전한 리더십과 팔로어십이 필요하다. 개인은 영민하지만, 조직은 우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잡스가 김성근 야구감독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오래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㉞



개봉 : 2013년
감독 : 조슈아 마이클 스톤
러닝타임 : 127분
출연 : 애쉬튼 커처, 조시 게드, 더모트 멀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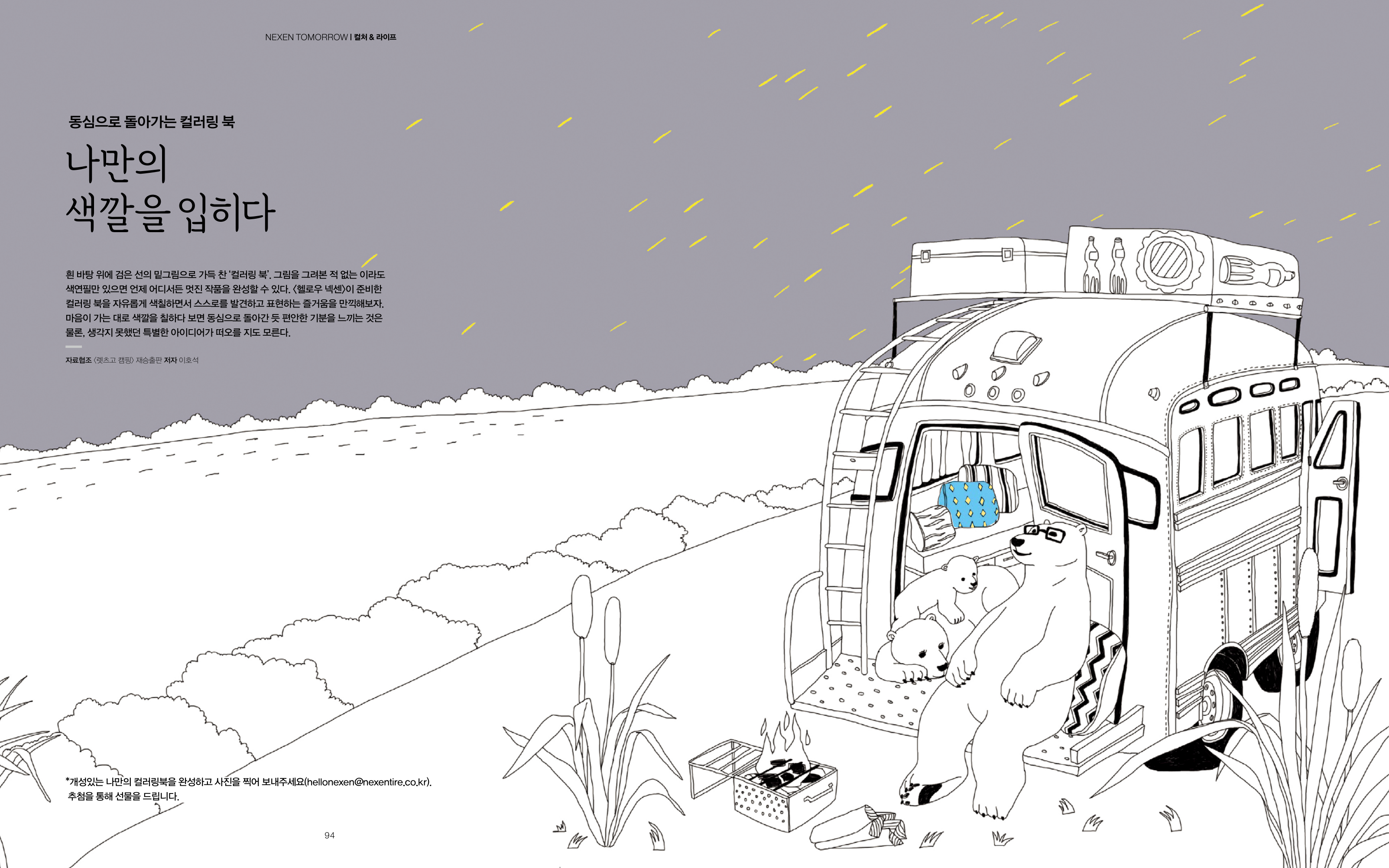
동심으로 돌아가는 컬러링 북

나만의 색깔을 입히다

흰 바탕 위에 검은 선의 밑그림으로 가득 찬 '컬러링 북'.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이라도 색연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헬로우 넥센>이 준비한 컬러링 북을 자유롭게 색칠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마음이 가는 대로 색깔을 칠하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지도 모른다.

자료협조 <렛츠고 캠핑> 재능출판 저자 이호석

*개성있는 나만의 컬러링북을 완성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hellonexen@nexentire.co.kr).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017년 봄호 〈헬로우 넥센〉 참여 후기

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패밀리 데이
(창녕) 관리팀 | 박영하 과장

평소에 만들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들이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보에 저희 가족을 소개할수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 될 듯합니다. 예쁘게 촬영해주신 〈헬로우 넥센〉 담당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 아 더 넥센
튜브영업2팀 | 정주영 차장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한 팀으로 업무하지만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보 출연으로 팀 구성원이 모두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아 더 넥센
튜브영업2팀 | 전우연 대리

팀원들 간에 사소한 것까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종종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헬로우 넥센〉 사보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넥센타이어 가족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 담하다
(양산) 압출파트 | 강연우

작업 현장을 떠나 갈매기 나는 광안리의 어느 수제 맥주집에서 동료들과 여러 종류의 맥주를 맛보았습니다. 서로 맛 품평회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후배님들과 같이 어울렸던 오후 네 시간이 얼마나 알차고 보람찼는지 감회가 젖네요. 막상 사보 활동에 참여해보니 그동안 무관심했던 점이 부끄럽군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대 : 담하다
(양산) 압출파트 | 박중희

〈헬로우 넥센〉 애독자로 이번 사보에 참여해보니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부산 광안리에서 사우들과 다양한 수제 맥주를 즐기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헬로우 넥센〉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찰 여름호를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kr

독자 선물 당첨자

황은정 경남 양산시 양주로
유광열 대전시 중구 서문로
이춘성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강영숙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김현영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은향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타이어 렌탈서비스 넥스트레벨 이용해보셨어요?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나 더 주고
타이어 위치교환도 그냥 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씩 점검해주는 넥스트레벨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타이어는 당연히 렌탈해야겠죠?



명품보증제도로 4개 렌탈시
타이어 2개 추가 증정



타이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정기 방문점검 무상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타이어 4개 기준 월 6,600원

· CP672 215 55 17 / 등록비 5만원, 36개월 중형차량 계약 기준
제휴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1855-0100

넥스트레벨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